

초막절 성경통독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진성봉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1년 5월

Copyright © 2021 Sungbong Jin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Study of The Bible Tongdok during Feast of Tabernacles

Sungbong Jin

Gwangyeong Central Church, Jeonnam Gwangyang, Korea

This study began with the aim to find ways to revive the church in the midst the COVID19 Pandemic through the teachings within the Bible. The Korean church saw a remarkable growth since the gospel entered the Korean Peninsula until the 1980s. The following decade, however, recorded an unfortunate decline. This decline has continued. Recognizing this problem, there have been studies conducted to find ways to revive the Korean church. With the declaration of religious reformation leaders to focus on only the Bible as the foundation, the contemporary Korean church is going towards what has been coined the 'Tong Bible' movement. Just as the Israelites tried to restore their faith during the Festival of Tabernacle by reading through the Pentateuch after returning from Babylon captivity led by Nehemiah and Ezra, the Tong Bible seeks to revive the church through the Scriptures.

First, this study looked into the meanings behind the reading aloud of the scriptures in the Old and New Testaments. It then examined what this meaning has for the Korean church today for the individual, the church, and in terms of publication. Central to this study is a look into the works of Dr. Byoung-ho Zoh who created the Tong method of reading the Bible and then paved a new paradigm of reading the entire Bible over 5 to 6 days during the past 30 years. This study comprises interviews that were held with Korean pastors who participated in this movement and program.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a 'conversation-style' and then interpreted systematically.

The data collected from the interviews were overall positive and will likely be beneficial for many Pastors in their ministry. The majority of Pastors interviewed expressed that they are willing to dedicate themselves to the Tong reading of the Bible and to prepare sermons that cover the whole scope of the Bible. This thesis is confident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Tong method during the Pandemic situation and beyond will be of help to the Korean church that is facing difficulties.

Just as the Festival of Tabernacle intentionally looked back on the 40 years in the desert and read through the Pentateuch, this thesis stresses that the 5-6 day program of reading the whole Bible is the most effective way for Pastors and Christians to live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preciousness of the Bible.

국문초록

초막절 성경통독 연구

진성봉

광영중앙교회, 전남 광양, 한국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요인으로 영적 침체에 있는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방안을 성경에서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복음이 한반도에 들어온 이래 1980년대까지 눈부신 성장을 해왔던 한국 교회는 1990년대 접어들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급기야 감소추세로까지 가고 있다. 이 상황을 바꿔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오직 성경’을 외친 종교개혁의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여 성경통독이 그 대안이라는 가설하에 성경적인 근거를 찾고자 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시행된 초막절의 율법 낭독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율법 낭독 신앙 사경회와 초막절을 살펴 그 실제적인 대안을 찾고자 했다.

먼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초막절 의례와 율법의 낭독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의미를 현대적인 의미에서 계승한 한국의 성경통독의 역사를 개인적, 교회적, 출판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교회 현장에서 실제로 접목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국 교회에 성경통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온 조병호의 통(通) 방법론과 약 30년간 진행된 성경통독원의 5박 6일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실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성경통독에 참가한 소감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방식으로 인터뷰하였고, 그 내용을 질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앞으로의 목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남은 생애를 통독 사역에 헌신하겠다고 결심하거나 목회자로서의 통전적 성경 이해가 없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성경통독을 통해 말씀 전체 속에서 본문의 이해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성경통독이 한국 교회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스라엘이 초막절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초막절에 율법 낭독 신앙 사경회를 통해 신앙을 계승하며 지켰듯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목회 현장에 '5박 6일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접목한다면 목회자는 물론이요 평신도의 신앙 성장과 영적 성숙에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 차

감사의 글	xi
표 목차	ix
그림 목차	x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선행 연구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5
논문의 구조	5
II. 초막절 율법 낭독	7
초막절이란?	7
구약성경과 초막절	11
신약성경과 초막절	17
면제년 초막절과 율법 낭독(신명기 31장)	19
초막절과 신앙사경회(느헤미야 8장)	22
초막절 율법 낭독과 성경통독	28
III. 성경통독의 역사와 실제	32
한국 성경통독의 역사	32
성경통독이란?	38
성경통독의 ‘대중화, 학문화, 세계화’	44
5박 6일 성경통독의 역사	51

5박 6일 성경통독의 실제	55
IV. 5박 6일 성경통독의 특성	61
통성경과 성경통독	61
통성경을 기반한 성경통독의 목적	69
5박 6일 성경통독 특성	72
V. 성경통독과 신앙성장의 사례들	89
인터뷰 개요	89
인터뷰 내용	89
결과 분석	92
VI. 결론	94
요약과 평가	94
결론과 제안	98
참고문헌	101

표 목차

<표1> 연구흐름도	4
<표2> 구약성경에 나타난 초막절	12
<표3> 초막절의 이해	13
<표4> 느헤미야의 위치와 기본 내용	22
<표5> 구약 통독 순서	42
<표6> 신약 통독 순서	43
<표7> 성경통독원에서 진행된 성경통독	54
<표8> 5박 6일 성경 읽기 프로그램	58
<표9> 율법서와 역사서의 통시적 정리	84
<표10> 예언서의 통시적 배열	85
<표11> 사도 바울의 사역을 시간순으로 배열	86

그림 목차

<그림1> 이스라엘의 초막절 행사	14
<그림2> 초막절과 예수님, 작자미상 1700년대 작품	18
<그림3> 에스라의 초막절 토라 낭독, Bernard Picart 작품, 1700	24
<그림4> 통성경 7트랙	81

감사의 글

먼저, ‘논문’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과정이 비록 길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에 새로운 도전이었고,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들어준 정말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지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제 안에 있던 가능성을 터치해 주시고, 마중물을 부어 주신 조병호 교수님, 김영래 교수님,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무한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 주제가 여러 번 바뀌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수십 번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낼 수 있도록 지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이끌어 주신 조병호 교수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교수님을 통해 만난 성경을 진정으로 가질 수 있게 되고, 저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성경을 가져 보지 못했는데,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공부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고 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완성도 높은 논문을 위해 단어 하나까지 세심하게 체크해 주시며 논문의 질을 높여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제 논문을 읽어 주시고 성심성의껏 보내주셨던 교수님의 피드백과 격려 덕분에 이 논문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냉철한 시각과 최고의 강의로 귀한 가르침을 주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도 이 논문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고 늘 든든한 힘이 되어 주며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은 성경통독원의 동역자들과 김한성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밤마다 아들의 목회와 삶을 위해 간구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진외문 장로님과 어머니 조현숙 권사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에게서 배웠던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아들의 새로운 도전을 진정으로 축하해 주시고, 끝까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지원해 주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 배움을 통해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 모양으로 응원해 주고, 기도해 준

누나 진성미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이 외에도 고맙고 감사한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모두 새기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 저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진성봉

제 I 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한국 개신교의 눈부실 만한 급성장은 가히 기념비적이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왔던 한국 교회는 199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감소 추세로 바뀌고 있다.

한국 교회의 쇠퇴 원인이 다양하게 분석되면서 동시에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대부분이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부응하여 2008년 6월 2일 한국의 30여 개 대학교의 신학자들이 ‘한국 신학자 140인 서울 선언, 성경을 통한 재정향’을 통해 “한국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 거듭나야 함”을 선언한 바 있다.¹ 1517년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종교개혁 이후 50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을 외치며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던 것이다.

2021년 현재, 한국 교회는 2020년 연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¹ 조선일보, 2008.06.05.

코로나19 로 인해 커다란 침체기에 빠져 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도의 신앙 성장을 위한 성경 공부와 기도회는 물론이고, 정규 예배까지 타격을 입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한국 교회를 다시 살려내고 성도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논문은 침체된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부흥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진행된 율법 낭독을 연구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매 7년 먼제년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회복을 위해 시행된 율법 낭독과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후에 포로귀환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진행한 율법 낭독 신앙 사경회에 대한 연구이다.

더 나아가 초막절에 진행된 율법 낭독 신앙 사경회의 내용을 실제 한국 교회의 목회 현장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성경통독원의 ‘5박 6일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히 ‘5박 6일 성경통독 프로그램’은 성경통독원의 조병호 원장이 지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국 교회의 목회자는 물론이요, 평신도의 신앙 성장과 영적 성숙에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초막절 절기와 ‘5박 6일 성경통독’에 대한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부흥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한국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노력에 의미 있는 작업이 되리라 생각한다.

선행 연구

초막절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유대인 절기 연구 중의 일부분인 초막절을 탐구한 연구와 초막절 자체만을 개별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있다. 유대 민족의 절기는 모두 토라에서 비롯된 것으로,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때부터 시작한 절기들로 성경을 근거로 행해지는 주요 절기 중에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관한 연구², 고대 이스라엘의 삼대 명절과 기독교 축제³, 이스라엘의 신앙과 신학의 관점에서 본 초막절⁴, 구약의 3대 절기 이해와 신앙교육에 대한 연구⁵, 초막절과 추수감사절⁶, 야웨 초막절 축제 설교자들⁷, 그리고 기타 유대민족들의 전통에 대한 연구가 있다.

각 절기를 통사적으로 고찰해 보기 위해 성경 및 기타 역사적인 문헌들을 정리해 보면 그 명칭과 시행 시기 및 방법이 조금씩 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성경통독에 대한 선행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부분적으로나마 성경통독을 다룬 연구가 있다. 특별히 본고에서는 성경통독원의 조병호 원장의 저서들과 성경통독원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² 박구용, “구약-신약-성약시대 명절의 축제문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선문대학교 신학대학원*, 2017.

³ 강사문, “고대 이스라엘의 삼대 명절과 기독교 축제,” *장신논단 제1집*(1985), 183-210.

⁴ 권혁승, “21세기 교회와 예배의 갱신: 이스라엘의 신앙과 신학의 관점에서 본 초막절,” *성경과 신학*, 24(1998), 29-54.

⁵ 장화선, “구약의 3대 절기 이해와 신앙교육에 대한 연구,” *신학지평*(2006), 19, 28-60.

⁶ 권혁승, “말씀과 신학 삶으로 읽는 구약성서: 초막절과 추수감사절-레23: 39-43,” *활찬* 11호,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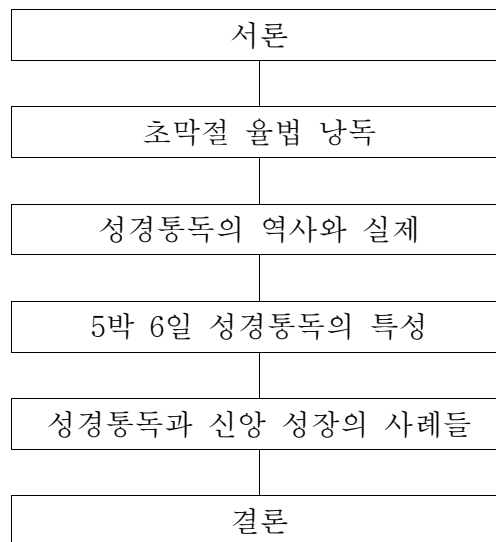
⁷ 방석중, “야웨 초막절 축제 설교자들,” *신학과 세계* 52권(2005), 5-40.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위한 방법은 성경과 문헌 연구를 통한 이론적 토대와 함께 인터뷰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초막절 율법 낭독과 통성경 이론을 고찰해 보고, 5박 6일 성경통독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5박 6일 성경통독을 경험한 목회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에 대한 질적분석을 통해 초막절 율법 낭독과 5박 6일 성경통독의 연관성 및 실행에 대한 결과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표1> 연구 흐름도



먼저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 연구를 밝히고, 이론적 배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초막절 율법 낭독과 성경통독의 역사와 실재를 통성경 이론을 바탕으로 이론적 토대를 정립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5박 6일 성경통독 프로그램과 내용을 소개하고, 성경통독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를 통해 성경통독이 신앙 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본 연구의 요약과 평가

및 결론과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본 연구는 초막절과 관련해서는 면제년 초막절에 시행된 율법 낭독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후에 진행한 율법 낭독 신앙 사경회, 이 두 장면에 집중해서 다룰 것이다. 또한 성경통독과 관련된 부분은, 1989년부터 조병호가 진행해 온 5박 6일 성경통독을 중심으로 살펴면서, 1989~2014년 동안 진행된 성경통독원 자료를 참고해서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1989년부터 실행한 성경통독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인터뷰도 전체 참가자 중에서 일부 목회자만으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논문의 구조

본고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선행 연구,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그리고 논문의 구조를 기술한다.

제2장 초막절 율법 낭독에서는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근거로 기술한다. 또한 초막절과 율법 낭독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와 선행 연구와 기록된 자료를 제시하며, 초막절 율법 낭독과 성경통독의 연결점에 대해 밝힌다.

제3장에서는 성경통독의 역사와 실제로서 한국 성경통독의 역사에 대해 성경통독의 정의, 개인적·교회적·출판적 성경통독 그리고 성경통독의 ‘대중화, 학문화, 세계화’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5박 6일 성경통독의 역사와 실제에서는 ‘5박 6일 성경통독을 함께 모여 진행’, ‘역사순으로 재배열해서 통독’, ‘전문 통독사들의 통독’, ‘인도자의 성경 숲 설명’ 등, 성경통독 참여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5박 6일 성경통독의 특성으로서 통성경과 성경통독 그리고 5박 6일 성경통독 특성에 대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원스톰리로’, ‘역사순 성경읽기와 강의’, ‘역사서와 예언서’, ‘사도행전과 서신서’ 그리고 ‘성경으로 시작하고 성경으로 끝남’ 순으로 논의한다.

제5장에서는 5박 6일 성경통독 참석자를 대상으로 성경통독 프로그램 참가 후 소감을 묻는 인터뷰 시 응답한 내용을 취합하고 분석하여 문서화하였다. 특히 성경통독 프로그램에 함께했던 참석자 중에서, 목회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교육하는 목회자들의 생생한 소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평가 및 제안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제 II 장

초막절 율법 낭독

초막절이란?

초막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3대 명절 중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매년 세 차례 모여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신 16:16).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명절 중 하나였다.

초막절은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렸다.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 이때는 추수가 모두 끝날 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 첫날에 일손을 멈추고 하루를 쉬면서 거룩한 소집 나팔을 불어 축제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칠일 동안 날마다 번제를 드렸고 절기가 끝나고 난 팔 일째에는 마지막 번제를 드리고 거룩한 성회에 참석하며 하루를 쉬었다. 이 절기 동안 모든 백성들은 초막에 거하였는데, 그 이유는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조상의 과거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수장절은 농경사회의 가을 축제로서 농산물 추수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다. 일 년 동안에 농산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원사와 수장절이 연결되면서부터는 초막절로 그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본래 이 절기에 대한

중요성은 역사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역사성에 의거할 때, 초막절은 ‘지난 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장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오세진, 2008)⁸.

레위기 23장 33~44절에는 초막절의 두 가지 성격이 분명하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초막절의 기원은 농사와 관련이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이라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너희는 칠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레 23:42 - 43).” 이에 초막절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출애굽 이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역사적 요소이며, 둘째는 올리브와 포도 등을 추수하는 수장절(출 23:16b; 34:22b)을 지키는 농경적 요소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명절이다. 이는 유월절이 곧 무교절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유대인은 이러한 전통을 수천 년 동안 고집스럽게 지켜왔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은 초막을 준비하고, 제례에 사용할 재물을 준비하여 초막절 기간에 이를 행했는데 이러한 의식 중에서 다른 절기와 초막절이 비교되는 것은 오경을 낭독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이다. 느헤미야 8장에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며 랍비들이 이를 해석하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다.

당시 성경은 두루마리 형태의 필사본 형태로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우 귀한 책이었다. 그래서 지금처럼 누구나 가까이 두고 늘 읽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⁸ 오세진, “초막절의 현대적 의의와 적용: 느헤미야 8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2008, 3.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를 암기하여 보존하였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장화선(2006)은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연구하는 시도를 했다.⁹ 다른 많은 연구에서는 초막절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쓰며, 그날 무슨 행사를 했고, 누가 참여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렇지만 절기를 왜 지키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성경에 나타난 절기는 하나님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조재선(2006:10-13)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로 인한 큰 기쁨 가운데 있을 때, 곧 신명기 8장 12-14절에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라고 한 것처럼 염려하여 초막절을 지키게 하였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에 대해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크게 나무라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과 연구하는 이들의 이익을 위해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¹⁰이라고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법은 보편적인 사상이 관습화되며 규칙이 되다가 법제화된다. 최초 우리 인류에게는 법제도가 없었다. 그러나 사회생활이 시작되고 공동생활에서 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규칙들이 관례화되고 규범화되면서 결국엔 법제화되었다.

⁹ 장화선, “구약의 3대 절기와 신앙 교육에 대한 연구,” *신학지평*, 2006, 19.

¹⁰ 조재선, “요한복음에 나타난 초막절의 신학적 모티프 - ‘말씀’과 ‘성령’으로써의 ‘물’ 모티프,”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2006, 10-13.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사회적인 제약이 따른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사회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오로지 이 동산의 선악과만 따먹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 지금 용어로 에덴동산의 법은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된다(창세기 3: 23-24).

인간사회에서의 법 제도는 사회공동생활을 이루기 위한 공통의 약속으로서 이를 어길 때 벌을 가하는 것은 결국 법과 사회 시스템이 되어 버린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며 우리의 사유를 넘어서는 부분이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지키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에 녹여내고 법제화하여 그들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훌륭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지만, 반면 구원의 길을 잘못 이해한 것은 오늘날 비판받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유명한 목사들과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의 설교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개인적 간증이나 자랑이 거의 없다. 오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인 인류 구원과 이를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뿐이다. 그들의 설교나 교육과정을 들어 보면 오로지 그것뿐이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기술된 초막절 행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토라를 낭독하는 행사이다. 여호와가 정한 땅에 모여서 초막을 짓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일정 기간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성경을 필사할 수도 있고, 성경을 돌판에 새길 수도 있으며, 고대 그리스인들처럼 연극으로 상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토라를 제사장이 소리 내서 낭독하고 이를 랍비들이 참석자에게 해석해 주었는지(느

8장)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이다.

구약성경과 초막절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각 민족과 나라에는 그들만의 풍습과 전통이 있다. 그리고 그 전통에 따라 특유의 절기와 명절을 지키며 살아간다. 또, 일정한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그 종교력에 따라서 종교적 명절을 지킨다. 우리는 한국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의 달력에 따라 봄에는 부활절, 이른 여름에는 맥추절 혹은 오순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겨울에는 성탄절을 지키고 있다(강사문, 1985).¹¹ 물론 우리는 일반 사회 구성원이 지키는 한국 민족의 전통에 따라, 대개 보름마다 한 번씩 있는 절기와 구분되는 것으로 계절에 따라 뜻깊은 날을 정하여 설날, 정월대보름, 단오, 칠석, 추석, 동지, 설달그믐 등도 지키고 있다.

레위기 23장 4-44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일곱 가지의 절기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을 정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매년 삼 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출 23:14)” 라고 말씀하셨다. 이 절기들은 단지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장화선(2006)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기거하는 장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특정한 장소에 가서 지켜야 할 절기로는 유월절(무교절), 맥추절(오순절, 칠칠절), 초막절(수장절, 장막절) 등이 있다.¹²

구약 원문을 토대로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막절(the Feast of Booths, 레 23:43; 신 16:13, 16)은 이스라엘이 큰 기쁨을

¹¹ 강사문, “고대 이스라엘의 삼대 명절과 기독교 축제,” 장신논단1, 184, 1985.

¹² 장화선, “구약의 3대 절기 이해와 신앙교육에 대한 연구,” 신학지평19, 30, 2006.

갖고 지키던 세 절기 가운데 하나로 농사력(農事曆)이 끝나는 가을에 지켰으며 40년간 광야에서의 유랑을 상기하면서 계약을 갱신하는 절기이다. 이 절기는 다른 이름으로 ‘장막절(역하 8:13; 요 7:2)’, ‘수장절(출 23:16, 출 34:22)’ 이라고도 부르며, 그 외에 ‘여호와와 절기(레 23:39; 삿 21:19)’, ‘절기(왕상 8:2, 65; 대하 7:8; 느 8:14; 사 30:29; 겔 45:23, 25)’ 등이 있다. 이 절기는 히브리 모든 남자가 매년 참여해야 하는 3대 주요 절기 중 하나이다. 이 절기는 일곱째 달 속죄일이 지난 15일 곧 10월의 중순에 시작되었다. 이 절기는 일주일간 지켜지는데 농사가 끝나는 그 해의 마지막과 관련이 있으며(출 34:22), ‘순례자(pilgrim) 축제와도 같았다(Geoffey Bromiley: 1979:535)’.¹³ 이를 정리하면 초막절은 수장절, 초막절, 여호와와 절기 등 여러 이름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 <표 2>와 같이 각 구절을 목상해 보면 초막절에 행해지는 행사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매년 세 번씩 모든 남자가 참석해야 했으며, 여호와가 택하신 곳에 모여야 했고, 그 행사는 7일 동안 행해졌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노동을 하지 않았다.

<표2> 구약성경에 나타난 초막절(박상수, 2004:11)¹⁴

근거	이름	준수 명령
출애굽기 23장	수장절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찌니라.
신명기 16장	초막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칠일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수장한 후에
출애굽기 34장	수장절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가을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찌라.

¹³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기독교백과사전 제14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4), 770.

¹⁴ 박상수, “구약성서의 ‘수장절-초막절’ 규례에 관한 연구 -고대 이스라엘의 ‘절기신학’에 관한 모색,”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1.

레위기 23장	초막절	너희는 매년에 칠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민수기 29장	여호와와의 절기	성회로 모일것ियो 아무 노동도 하지 말것이며 ... 절기를 지킬 것이라.

구약 본문에서 나타난 초막절의 기간과 주요 의식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3> 초막절의 이해(박상수, 2004:13)¹⁵

근거	기간	주요의식	특별규정
출23장	언급 없음	언급 없음	언급 없음
신16장	7일간	언급 없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14절) ...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찌니라(15절)
출34장	언급 없음	언급 없음	언급 없음
레23장	7일간	제8일 성회(36, cf. 39절), 아체레트(36절, 거룩한 대회), 루라브 의식(40절), 7일간 초막거주(42절)	노동 금지(35, 36, 39절) 야웨의 절기(37절) 칠일 동안 즐거워하라(40절)
민29장	7일간		노동 금지(12, 35절)

이스라엘은 ‘수장절-초막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킨 모습에 대해서 구약성서는 귀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민족이 초막절을 지킨다.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매우

¹⁵ Ibid., 13.

많다. <그림 1>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의 초막절 행사 장면이다.

따라서 전세계의 많은 기독교인이 초막절 기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다.

<그림 1> 이스라엘의 초막절 행사¹⁶



(출처: 이강근, 2010)

초막절과 장막

이스라엘의 선조인 족장들은 초막(장막)에 거하였다(창 12:8; 26:25; 31:25; 합 11:7). 또한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막에 거하였다(출 13:20; 15:27; 19:1). 초막절 절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 머물렀다(레 23:42-43). 조상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한 것을 기념하여 초막을 짓고 이 절기를 지킨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날 것을 염려하여 영구적인 자신의 주택에서 잠시 벗어나 초막에 거하게 함으로써 광야에서 집 없이 방황하였던 과거를 상기하고

¹⁶ 이강근, “이스라엘의 초막절 버들가지 들고 기도,” *교회와 신앙*, 2010.09.24.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을 맺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초막절의 주된 의미이다.

초막은 하늘이 보이도록 세워졌는데, 유대인들은 초막에서 하늘의 별과 달도 올려다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였다.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성막의 설계자(출 25:9)이신데, 구약성경의 많은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큰 천막을 설계하시고 세우신 것에 비유한다(시편 19:4-5; 이사야서 40:22; 44:24; 45:12; 51:3). 이 초막절이 신년 절기라는 언급은 구약에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후대에 초막절이 유대인에게 신년 절기로 지켜질 수 있었던 몇 가지 단초를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초막절이 지켜지는 시기를 연말(年末)이라 하였는데, ‘연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לְסוֹף שָׁנָה 로서 일반적으로 ‘일 년의 끝부분’이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G. B. Gary같은 학자는 여기에서 사용된 סָף 동사를 ‘go forth’의 의미가 아니라 ‘rising’으로 해석하여 ‘beginning of the year’로 보고 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세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לְסוֹף שָׁנָה 는 그 의미가 ‘그 해의 바뀜(the turn of the year)’이라는 의미로서 한 해의 마침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⁷

세상을 지으신 분과 그것을 계속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장막을 펼치는 행위로 사용된 ‘치시다(נָסַח)’는 동사는 칼 능동 분사형으로 사용된 것으로 어떤 한 번의 행위보다는 계속적인 행위를 의미하는데(시 104:2),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항상 활동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바울은 그의

¹⁷ 조재선, “요한복음에 나타난 초막절의 신학적 모티프 - ‘말씀’과 ‘성령’으로써의 ‘물’ 모티프,” 12.

서신서에서 인생을 장막에 비유하며, 하늘의 영원한 집을 향한 인간의 책임과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고후 5:1-5).”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집은 영원한 것이며, 인간이 손으로 만든 손상되기 쉬운 장막처럼 쉽게 무너지는 어떤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견고하고 확실한 것¹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을 회복하시고, 보살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장막을 고치며(암 9:11), 세우며(사 54:2-3), 확장하는(사 33:20) 것으로서 표현된다. 장막이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사용된 첫 번째 경우는 “(주님께서)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삼하 7:6-7)” 라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곧 장막)에서 사람들 사이에 거하신다(겔 37:27)는 좀 더 역 동적인 표현이 다시 등장하였다. 필로(Philo Judaeus)는 초막절을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날로 보았다. 이 기간에 부요한 자나 가난한 자, 궁핍에 거하는 자나 초막에 거하는 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지은 초막에 거함으로 동질성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조상이 광야에서 머물렀던 생활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기회로 삼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들어가고, 다시금 자신의 주택으로 돌아갈 때는 주님의 힘으로 세상으로 돌아가 사는 의미로 해석¹⁹하기도 한다.

¹⁸ Ibid., 31.

¹⁹ 조재선, “요한복음에 나타난 초막절의 신학적 모티프 - ‘말씀’과 ‘성령’으로서의 ‘물’ 모티프,” 33,

신약성경과 초막절

신약성경에서 초막절이 언급된 것은 요한복음 7장에서 단 한 번 나오고 있다. 처음에 예수께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거절하였지만(7:2-8), 후에는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7:10). 그리고는 명절 중간에 성전에 나타나셔서 가르치셨다(7:14). 예수님은 초막절 기간에 성전에 오르셔서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시고 봉독하시며 가르치신 것이다. 이 장면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예수님은 예배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전통적인 예배의 절차에 따라 성경을 봉독하시고 선포하셨다. 그러나 그 당시 기득권층의 일부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이 레위인이 아닌 목수의 아들이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것에 대해 반발을 했을 뿐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따르면, 명절 끝 날에 예수께서는 성전에 모여있는 유대인 군중들을 향해 목마름과 생수에 관한 설교를 하셨다(권혁승, 1998).²⁰ 초막절 끝 날에 선포된 예수님의 설교는 명절 끝 날을 ‘큰 날’로 바꾸시며, 성전 제단에 물을 부으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간구하는 백성들에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요 7:37-38)라고 선포하셨다. 이는 마치 초막절 명절을 지키며 그 의미를 되새기며 메시아의 등장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향한 응답과도 같았다.

²⁰ 권혁승, “21세기 교회와 예배의 갱신: 이스라엘의 신앙과 신학의 관점에서 본 초막절,” 29-54.

<그림2> 초막절과 예수님²¹



신약성경에서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현대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일과 부활절을 가장 큰 절기로 삼고 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구약시대가 마감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활동과 신약성경의 저술 그리고 전파의 과정이 곧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는 없던 가서 제자 삼으라(마 28:19)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다. 전술한 대로 구약에서의 초막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후의 신약시대에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고찰해 볼 수 있다.

²¹ 작자 미상 1700년대 작품, 요한복음 7장에 기술된 초막절 기간의 예수님.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의 회당에서 예수님.

면제년 초막절과 율법 낭독(신명기 31장)

신명기 15장 1-11절의 면제년 규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의 채주는 7년째 해에 채무자의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 면제년 본문에 나타나는 ‘땅’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공간 배경을 제시할 뿐이며, 레위기 25장 1-7절의 안식년 규정에서처럼 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안식의 권리를 표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면제년 본문에 나타나는 땅은 하나의 주제어로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사이에 존재하는 7년법의 형성뿐 아니라 오경형성사에 대한 주요 단서를 제공한다. 면제년 규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 가난한 사람이 사라질 것이라는 이상(신 15:4-5)과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신 15:11) 사이의 괴리를 폭로한다.

그럼으로 면제년 규정은 단지 하나의 법조문의 기능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수직적 차원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수평적 차원에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도록 요구한다. 신명기의 면제년 규정은 감성의 설교체로 기술되고 선포되어 법규정을 듣는 청자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도록 설득한다. 역사비평 해석방법의 도래 이후 서구의 학자 대부분은 오경의 출애굽기의 계약법전이 가장 먼저 기록되고, 이를 기초로 신명기 법전, 마지막으로 성결법전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안식년과 관련된 세 병행 본문 사이의 관계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러한 가설을 따르면 성결법전의 안식년 본문이 신명기 법전의 면제년 본문을 전제로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을 받아들일 경우, 레위기 안식년과 신명기 면제년이 설정하고 있는 수혜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을 설명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레위기 안식년의 수혜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사람과 짐승을 모두

포함한다. 이와 달리 신명기의 면제년 규정은 출애굽기에 기술된 휴경의 해 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수혜자를 이스라엘 형제로 제한한다. 물론 일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외국인을 제외시킨 것은 상업 활동에서 발생한 채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혈통을 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그 전체에 흐르고 있는데, 이는 주전 8세기 강대국 앗시리아의 위협 앞에서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방어기제가 작용²²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선종, 2012:18-25).

스태커트(Stackert)는 레위기 25장 6절의 수혜자 목록이 출애굽기 23장 11절과 신명기 15장 17-18절을 결합하여 산출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레위기 안식년 수혜자는 출애굽기 및 신명기가 열거하는 수혜자와 달리 외국인을 포함하며, 특별히 레위기 안식년 수혜자 목록에 등장하는 거류민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그 어느 목록에도 등장하지 않는 사실로부터 그의 가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김선종 2012:26).²³

신명기 31장 10절 이하를 먼저 살펴보면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수장절-초막절’ 절기를 실제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지켰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절기 때에 토라를 낭독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본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의식은 매년 절기 때마다 거행한 것이 아니라 “매 칠 년 끝 해, 곧 정기 면제년(הַשָּׁמֶשׁ תִּנָּשׁ דַּעֲמֵב מִיָּנֹשׁ עֲבָשׁ זָקֵמ)” 초막절에 토라 낭독 의식을 행했다고 전한다. 여기서 “매 칠년 끝 해, 곧 정기 면제년”이란 이스라엘이 7년마다 맞게 되는 안식년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²² 김선종, “면제년의 땅(신 15:1-11),” *장신논단 제44집*(2012), 18-25.

²³ Ibid., 26.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토라 낭독 의식을 다름 아닌 모세의 명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7월에 행한 성전봉헌식은 이 절기의 때에 맞춰서 치렀다고 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과 병행 본문인 역대하 5장에 나와 있다. 이때는 “에다님월 곧 7월 절기(왕상 8:2)” 때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의 가을 절기인 ‘수장절-초막절’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솔로몬이 가을 절기 시기에 맞춰 성전봉헌식을 거행한 것은 아마도 이때가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시기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한다(박상수, 2004:18).²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매 칠 년 끝 해인 면제년의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라는 명령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7년에 한 번씩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율법의 내용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매 칠 년 면제년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해야 하는 이유가 신명기 31장 12절과 13절에 두 가지로 나와 있다.

첫째 이유는,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성읍에 거류하는 타국인이 율법을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율법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눈여겨봐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율법 낭독에 참여해야 하는 대상이 남녀 노유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뿐만이 아니라,

²⁴ 박상수, “구약성서의 ‘수장절-초막절’ 규례에 관한 연구 -고대 이스라엘의 ‘절기신학’에 관한 모색,” 18.

그들과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들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어야 할 율법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닌, 모든 율법을 다 들려주고 지켜 행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면제년 초막절 율법 낭독의 중요한 특징은 율법의 부분이 아닌 전체를 들려주라는 말씀인 것이다(신명기 31:12).

둘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 출애굽 과정과 광야 생활 중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자녀 세대에게 율법을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대대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계속 계승해 가라는 의미인 것이다(신명기 31:13).

초막절과 신앙사경회(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서는 크게 느헤미야가 주도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율법 교육과 초막절 준수를 중심으로 한 에스라의 개혁 활동, 예루살렘 성벽 봉헌, 느헤미야의 개혁 활동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군데군데에 족보 내지는 사람들의 명단을 추가로 소개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세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⁵

<표4> 느헤미야의 위치와 기본 내용

1-2장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방문 및 현지 답사
3-6장	방해 세력을 무릅쓴 예루살렘 성벽 재건
7장(=스 2장)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귀향민 명단
8-10장	에스라의 개혁 활동
11:1-12:26	예루살렘 거주민, 제사장, 레위인 등의 명단
12:27-47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13장	느헤미야의 개혁 활동

²⁵ 강성열, “진리를 아는 기쁨,” *설교자를 위한 성경연구 제7권* 74호(2001), 32.

느헤미야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의 술을 담당하던 궁중의 관리였고 유대인이다.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으며, ‘느헤미야(נְחֻמְיָהוּ)’라는 이름은 ‘주님께 위로받는다’는 뜻이다. 느헤미야 1장에 ‘나’라는 1인칭 주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느헤미야 본인이 기록했다고 전해진다. 다만, 본서 후반부의 족보와 종교 운동이 에스라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에스라가 일부 또는 전체를 기록했다는 견해도 있으며, 70인역도 본서의 저자를 에스라로 보았다. 초막절 행사와 관련해서 느헤미아서 8장에 토라 낭독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알베르츠는 느헤미야 8장의 율법 낭독은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통한 예배가 성서 낭독을 중심으로 하는 회당 예배의 원형들로 발전하는 시발점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8장의 율법 낭독을 통한 이스라엘의 신앙 갱신은 이스라엘의 제의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이 있다. 그것은 포로기 이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희생 제사가 중심이 되었지만, 느헤미야 8-10장의 율법 낭독 이후에는 희생 제사보다는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의 내용을 깨닫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발전되었음을 볼 수 있다(이훈하, 2008:67).²⁶

²⁶ 이훈하, “느헤미야 8-10장의 율법낭독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67, 2008.

<그림3> 에스라의 초막절 토라 낭독(Bernard Picart 작품, 1700년)



느헤미야 8장은 1-12절과 13-18절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12절의 내용은 7월 1일의 집회와 관련하여, 13-18절은 초막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시작 부분인 1절과 13절이 모두 율법과 그 해석을 듣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든 청중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으며, 종결 부분인 12절과 17절은 모두 에스라의 설명에 순종함으로써 따라오는 기쁨에 대한 언급으로 끝나고 있다(임동원, 2004).²⁷ 1-12절까지는 다시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하는 1-8절과 회중들이 돌아가는 9-12절로 나뉘고, 13-18절은 초막절을 준비하는 13-15절과 초막을 짓고 기뻐하는 16-18절로 나뉜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다가 일곱째 달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7월이 어느 해의 7월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²⁷ 임동원, “에스라의 율법 낭독,” *설교자를 위한 성경연구 제10권* 110호(2004), 46.

많지만, 적어도 현재의 성경적인 문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던 해의 7월을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7월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절기, 곧 나팔절(레 23:24-26; 민 29:1-6)과 속죄일(레 16:29; 23:27; 25:9; 민 29:7-11) 및 초막절(레 23:34; 39; 민 29:12-40) 등이 있는 달이다. 그런데 2절이 7월 1일이라는 날짜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1-12절에 있는 절기는 나팔절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초막절에 대한 언급은 14절 이하에 나타난다.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은 나팔절에 이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한곳에 모였을 것이다. 8장 전체는 이처럼 두 절기를 연속적으로 지키게 된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8장 전체의 주요 관심사는 초막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1-12절의 설명도 초막절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강성열, 2001).²⁸

느헤미야 8장의 본문 내용을 목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성벽 재건 후 절기가 많은 7월을 맞아 백성이 모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 교육을 요청하고(1절), 에스라는 귀환 공동체에게 율법을 교육하기 시작한다. 7월 1일 교육이 가능한 모든 남녀가 모여 에스라의 율법책 강독을 들었다(2-3절). 에스라가 백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된 지금,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에스라는 백성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레위인은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쳤는데(7-8절), 이는 많은 레위인이 백성에게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의 내용을 가르쳐 깨닫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귀환 공동체의 일원들 가운데에는 모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해석해 주며 율법의 내용을

²⁸ 강성열, “구약성서의 신앙과 세계-진리를 아는 기쁨,” 한울출판사, 170, 2001.

깨닫도록 했을 것이다. 이렇게 귀환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자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기 시작한다(9절). 마치 신앙사경회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어서 귀환 공동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나팔절 절기를 지키는데(10-12절), 일찍이 모세를 통해 주신 레위기에 기록된 나팔절 절기를 지키는 법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레 23:24-25)” 7월 1일 나팔절 절기를 지키고 난 후 귀환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더 배우고자 에스라에게 찾아 오고(13절), 결국 귀환 공동체는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더 공부하고자 나팔절에 이어 초막절 절기도 지키게 된다(14-18절).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 3대 명절(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중 초막절을 지키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닷셋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 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 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면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23:34-43)”

이때 초막절을 지킨 것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후 드렸던 초막절

명절만큼이나 크게 기뻐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의 초막절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힘을 합해 귀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대로 지킨 절기였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며 종려나무나 버드나무로 초막을 짓고 말씀을 읽고 배우며 7일간의 절기를 지켰던 것이다.

정리해 보면, 성벽 건축 후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는 귀환 공동체를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하고 신앙사경회와 같은 형식으로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들려주는 ‘성경통독’을 진행했다. 이 ‘성경통독’은 율법책에 언급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졌는데, 이 사건의 장면은 말 그대로 장관이었을 것이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초막절은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에서 거하던 때를 기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로서, 이 기간에는 노동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다. 즉 초막절은 자신의 삶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확인하며 돌아보는 절기였던 것이다. 특별히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에스라가 성경통독을 진행하였는데 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방편으로 레위기에서 말한 초막절의 성격과 의미에 잘 부합했다. 새롭게 시작되는 귀환 공동체, 재건세대의 삶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함을 재확인하는 초막절 절기였다(조병호, 2020).²⁹

조병호는 이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도한 초막절 율법 낭독을 ‘성경통독운동’으로 해석했다. 이를 통해 귀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재건되고, 제사장 나라의 주체로 확립되었기 때문에 ‘성경통독운동’이라고

²⁹ 조병호, *성경, 통으로 숲 이야기9*(서울: 통독원, 2020), 269-285.

표현했던 것이다.

초막절 율법 낭독과 성경통독

지금까지 초막절 율법 낭독에 대해서 살펴본 대로, 초막절 율법 낭독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였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매 칠 년 면제년 초막절에 진행했던 율법 낭독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함께 거주하는 타국인까지도 대상이 되었고, 더 나아가 역사의 진행과정 속에서 계속 태어날 자녀들까지도 대상이 되었다. 또한 율법 낭독의 범위도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율법 전체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임의대로 율법을 선택하여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모두 낭독해야 했던 것이다.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모든 율법을 낭독했다는 점은, 초막절 율법 낭독의 모범 샘플이라고 할 수 있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주도로 진행되었던 초막절 신앙사경회, 초막절 ‘성경통독운동’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신명기 31장의 면제년 초막절 율법 낭독과 느헤미야 8장의 초막절 신앙사경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삶의 여러 어려운 상황과 고난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낭독해야 하는 초막절 낭독이 칠 년마다 면제년을 통해 똑같은 출발선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로운 각오와 열정을 제공하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 진행했던 초막절 신앙사경회도 포로 귀한 공동체의 백성에게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신앙을 회복시키며,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데에 큰 동력과 에너지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 8장과 관련해서 조병호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성경통독집회는 새로운 신앙공동체를 위한 가속페달과도 같았습니다.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죄를 깨닫기 시작함으로써 예루살렘에 큰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³⁰⁾”

초막절 율법 낭독의 중요한 특징인 모든 율법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었다는 측면과, 초막절 율법 낭독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회복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효과적이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신앙 운동이 일어난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느헤미야 8장을 중심으로 한 초막절 율법 낭독과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교회 프로그램으로서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여러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장소와 시간의 측면이다. 초막절의 율법 낭독은 일상에서 떠나 초막에서 지내며 7일 동안 진행했고(레 23:33-42; 느 8:14-17), 성경통독 프로그램도 일상에서 떠나 일정 장소에 함께 모여서 5박 6일간 진행한다는 점이 유사하다.

둘째, 구성원을 보면, 초막절의 율법 낭독은 가정 단위로 초막을 짓고

³⁰⁾ 조병호, 성경통독, 통독원, 363.

생활하다가 집회로 모인다(레 23:36; 느 8:17-18). 즉 모든 백성이 함께 초막절을 지키며 진행했던 것이다. 성경통독 프로그램도 개인적으로도 참석이 가능하고,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교회 그룹 등으로도 참석이 가능하여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유사하다.

셋째, 성경 낭독 방식을 들 수 있다. 느헤미야 시대의 초막절 율법 낭독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은 그것에 귀를 기울였다(느 8:2-3). 성경통독 프로그램에서도 성경 전체를 통독사(대표해서 읽어주는 사람)가 읽거나 그것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들려준다. 또한 함께 소리 내어 통독하기도 한다.

넷째, 교육적인 면이다. 느헤미야 시대의 초막절 율법 낭독이 진행될 때 레위인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느 8:7-8)”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통독 프로그램에서도 인도자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성경에 대해 설명해 줌으로써 이해를 돕는다.

마지막 다섯째는, 식탁 공동체이다. 느헤미야 시대의 초막절에 모든 백성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느 8:12). 성경통독 프로그램에서도 참석자 모두가 5박 6일간 낭독되는 성경과 인도자의 성경 전체 설명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식사도 함께하며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누린다. 이처럼 초막절 율법 낭독과 성경통독 프로그램은 유사한 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초막절 율법 낭독의 성경적 근거와 5박 6일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비교했을 때 분명한 것은 성경 전체를 통(通)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며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 8장이 초막절 축제였던 것과 같이 5박 6일의 성경통독 프로그램은 모든 참석자들의 축제와 같다고 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성경통독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 III 장

성경통독의 역사와 실제

한국 성경통독의 역사

이 장에서는 성경통독의 의미와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진행되어 왔던 성경통독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살펴보고, 출판을 통한 성경통독과 성경통독의 ‘대중화, 학문화, 세계화’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개인적 성경통독

앞서 성경통독을 초막절의 성경 낭독과 연계하여 큰 틀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개인적으로 진행된 한국의 성경통독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성경을 몇 구절 읽는 성경 공부의 차원이 아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는 의미에서 성경을 통독한 경우는 언론에 기사화된 몇몇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일 먼저 1970년대 제야에서 민주화운동을 펼쳤던 인사들이 감옥에서 성경을 통독했던 사례를 들 수 있다.³¹

개인적인 성경통독의 첫 사례로는 《매일경제》 1969년 4월 16일 자에 실린 내용으로, 김준연 전 국회의원이 수감 중 신구약성경을 독일어로 통독(通讀)한

³¹ 조병호, “성경 통으로 보기 한국교회와 성경통독의 역사,” *월간목회* 3월호(2012).

사례를 들 수 있다.³² 다음으로 《경향신문》 1974년 9월 24일 자의 기획 연재에서 소개한 길선주 목사의 사례로서, ‘종교백년, 기독교편에 길선주 목사’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길선주 목사는 구약성경을 30번이나 통독(通讀)했으며 구약의 전반부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는 약 500번, 신약은 100번 이상 통독했다고 한다.³³ 《매일경제》 1974년 10월 14일 자, 기획 연재 기사에서는 남강 이승훈이 대구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성경 전체를 100번 통독했고, 특히 예언자들의 교훈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한다³⁴. 마지막 사례로, 《동아일보》 1976년 1월 1일 자의 ‘나의 건강법’이라는 코너에 소개된 작곡가 이흥렬의 인터뷰 내용을 들 수 있다. 그는 “나는 5년 전에 신경통을 앓을 때부터 성경을 통독(通讀)했다. 그리고 금년에는 1월부터 두 번째로 성경을 다 읽었다.”라고 밝혔다³⁵.

이러한 기록들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통독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조병호는, 동양적 한국 교회에서는 당연하게도 동양의 학습 방법인 ‘통독’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성경을 읽는 특징이 있다고 언급하였다³⁶.

한국 교회의 개인적 성경통독은 한국 사회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동양의 학습 방법인 ‘통독’이 성경 읽기에 접목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양의 전통적인 학습 방법 중 하나인,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내어 읽어

³² 매일경제, 1969.04.16.

³³ 경향신문, 1974.09.24.

³⁴ 경향신문, 1974.10.14.

³⁵ 동아일보, 1976. 01.01.

³⁶ 조병호, “성경 통으로 보기 한국교회와 성경통독의 역사,” 월간목회 3월호(2012).

가면서 외우기도 하는 ‘통독’의 방법이 성경 읽기에 접목되면서 성경통독이라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나오게 된 것이다.

교회적 성경통독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마르틴 루터도, 영국 감리교 운동의 선구자인 존 웨슬리도 모두 성경을 애독하며 성경에 인도되는 삶을 살았다. 이러한 성경 중심의 기반 위에 세워진 복음주의적 신앙이 1885년, 청년 선교사들에 의해 한반도에 계승된다. 1883년 10월 미국 하트퍼드에서 열린 전국신학교연합회에 개혁파 신학교 학생이었던 언더우드와 드루신학교 학생이었던 아펜젤러가 참석했다. 이 두 청년은 이 모임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확고히 하게 되고, 미국의 보수신앙으로 훈련받은 후 해외선교사로 자원하여 당시 복음에 있어 가장 낙후한 나라 중 하나였던 조선에 뜨거운 열정과 복음을 들고 들어 왔다. 벽안의 그들에게 있어 미지의 나라에 가까웠던 조선에 선교사로 들어온 1885년 4월 당시 아펜젤러의 나이는 27세, 언더우드의 나이는 26세였다.

120년이 넘는 한국 개신교는 선교 초기부터 성경 읽기를 중요시했다. 일례로 서구의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만주와 일본에서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글 성경을 읽고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세례 줄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선교사들의 모임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발단이 되었고, 한국 초기교회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경회를 부흥회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삼았다. 청년 선교사들은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우선 학교와 의료기관을 설립했는데, 이로써 한국에서는 근대적 개념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즉, 근대교육의 영향을 받고 준비되어,

반봉건·반식민운동, 개화운동, 항일독립운동으로 그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성경은 한국 기독교 초기부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성경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도 성경을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읽어 온 측면이 있다. 이것은 서구 중심으로 발전해 온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서구적 지식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는 분절적, 분석적, 해체적 방식을 통해 성경을 접근하고 연구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한 서구적 방식을 비판적 여과 과정 없이 수용하는 것을 정도로 삼아온 동양의 기독교 역시 동일한 오류를 반복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부분적인 성경 읽기는 곧 편향적인 성경 읽기로 이어져, 성경이 시대 상황 해석에 도구화되는 폐단을 낳았다는 점이다. 시대적 상황과 현실 이데올로기에 따라, 성경의 읽기 범위와 이해의 방향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화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왜곡되고 기독교 본래의 가치가 퇴색되었던 역사적 실례들을 갖게 된 것이다(조병호, 2016).³⁷

개인들의 성경통독 방식이 ‘지역교회’로 드러난 경우도 있다. 바로 1976년도에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교회의 최창학 목사(당시 전도사, 현 삼가제일교회 시무)가 ‘교회적’인 성경통독을 주도했다. 최창학 목사는 어릴 적 서당 경험에서 배운 ‘통독’ 방식으로 성경을 보다가, 군대 시절부터 성경 전체를 통독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는 진주고등성서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어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금서교회를 섬기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성경을 통독하는 모임을 교회적으로

³⁷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개정판* (서울: 통독원, 2016), 34.

시작했다. 최창학 목사는 성경을 통독(通讀)해야 하되, 성경은 부분적으로 끼워 맞추는 식이 아니고 전체를 봐야 한다고 가르쳤다. 최창학 목사는 금서교회와 다음 사역지인 칠정교회에서 성경통독을 진행한 바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독할 것을 독려하며 꾸준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조병호, 2012).³⁸

‘처음부터 끝까지’ 혹은 ‘순차적으로’ 라는 역사 순서의 의미가 담겨 있는 ‘통독’은 서구적이며 분석적인 강해보다 동양적인 배움과 지식연구의 방법이다. 한국 성경통독의 역사를 살펴보면 120년 한국교회의 흐름 속에서 성경 강해적으로 접근한 것은 1980~1990년대로 20년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기간 목회자들의 성경 강해는 강해 설교로 이어져서 한국교회 성도도 자연스럽게 성경 ‘강해’를 학습하고 습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1990~2010년, 20년간은 성경 전체를 읽기 원하는 성경 ‘통독’이 확산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12년에는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성경을 통독하거나 통독 계획을 세웠는데, 성경을 ‘통독’하겠다는 개인 또는 교회가 ‘상당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한국교회에서 성경 ‘통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조병호, 2012).³⁹

출판을 통한 성경통독

1977년도에는 출판을 통해 성경통독이 등장했다. 아놀드 로드스(Arnold B. Rodes)의 《통독(通讀)을 위한 성서해설》이 문희적, 황성규 역으로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이미 미국에서 1964년에 출간된 아놀드

³⁸ 조병호, “성경 통으로 보기 한국교회와 성경통독의 역사,” 월간목회 3월호(2012).

³⁹ Ibid.

로드스의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The Mighty Act of God)》의 번역서이다. 그런데 두 역자는 책의 원제목을 부제로 바꿔서 책 제목을 《통독을 위한 성서해설》로 정했다. 이는 번역자가 아마도 ‘통독’이라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 대해 조병호(2016:17)은 저자는 이 책 가운데서 신구약성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일관성 있는 하나의 줄기를 잡아내어 이를 쉽게 스토리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평신도와 일반 대학생은 물론이고, 신학과 목회자들까지도 성서 연구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교회의 장년부 성경공과로도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⁴⁰.

1988년도에는 한국에 성경 66권을 ‘역사순’으로 바꿔서 읽으려는 의도로 쓰인 책이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에드윈 하이든(Edwin V. Hayden) 외 3명(Rdy W. Mck-inney, Gary H. Hall, Thomas D. Thurman)이 공동 집필한 《A Through The Bible Reading Program》을 한국의 나침반출판사에서 《1년 완성 성경전서 읽기 안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여 출판한 것이다. 개역성경이 주제별순으로 편찬되어 있는데 이 책은 역사순으로 성경 읽기를 시도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성경 전체를 통독한다는 의미의 ‘통독’이라는 표현 그 자체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혹은 ‘순차적’으로라는 역사순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은 주제별(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등)로 편찬된 성경의 각 권을 읽었다면, 이 책은 시기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느헤미야서를 역사 시기에 따라 페르시아 시대의 말라기와 함께 읽는 아이디어를 한국 교회에 ‘책’으로 제공한 것이다⁴¹.

⁴⁰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6), 17.

⁴¹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jyoun24&logNo=220699802748&>

특히, 본격적인 역사순 성경통독을 위한 성경 출판은 성경통독 전문출판사인

‘통독원’ 이 2008년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출간하면서 활발히 펼쳐졌다.

성경통독이란?

2008년 기독교포털 (주)갯피플이 ‘성경 말씀, 얼마나 열심히 읽으셨나요?’ 를 주제로 1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수님을 믿은 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본 경험이 있느냐’ 는 질문에 응한 710명의 크리스천 네티즌의 43%가 성경을 통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통독을 해 보았다고 응답한 크리스천 중 50.1%는 혼자 힘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6.9%는 성경통독 집회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통독할 수 있었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나요?’ 라는 설문에는 44.6%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지는 못했다’ 고 응답했고, ‘신구약 통독 1회’ 21.4%, ‘구약 또는 신약 중 하나만 1회 통독’ 12.3%, ‘신구약 통독 2회 이상’ 9.6%, ‘통독은 하지 못했지만 매일 규칙적으로 양을 정해두고 읽었다’ 12.1%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성경을 꾸준히 읽기 어려운 이유로 ‘바쁜 일상’ (36.3%)을 들었고, ‘성령 충만과 말씀을 사모함이 없어서’ (20.2%), ‘내용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15.6%), ‘읽다가 중단하면 다시 창세기부터 읽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겨서’ (11.2%), ‘책도 두껍고 문체가 딱딱해 쉽게 읽혀지지 않아서’ (7.5%)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네티즌은 성경말씀 읽기에 대한 결심을 댓글로

달았다. “성경을 읽다가도 다른 일이 몰아치면 손을 놓게 되는데 의지력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을 올해는 기도와 말씀으로 채무장하길 다짐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찬양에 대한 열정, 예배 드림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또 “성경을 먼저 열어보지도 않고 말씀을 고민한다면 그건 조금 어리석은 일이다. 우선 도전해 봅시다”, “포켓 성경으로 출퇴근시에 읽으니 한 해에 많게는 4회 통독을 하게 되더군요” 등 성경 읽기에 대한 조언을 나누기도 했다(노회경, 2008).⁴²

지금까지 성경통독에 대한 한국 교회 성도들의 현주소를 살펴보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도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3%가 성경을 통독해 본 적이 없다는 결과는 실로 안타깝다. 한국 교회 성도의 절반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멀리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또한 성경을 통독한 성도 중에서 대부분은 혼자의 힘으로 성경을 통독하고 있으며, 성경통독집회나, 대중집회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경우는 6.9%정도로 매우 미미하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통독하는 중요한 사역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지 않으며, 그 영향력도 매우 약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성경통독의 활성화를 위해서 성경통독 집회와 프로그램에 더욱 더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1989년부터 성경통독을 대중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는 성경통독원 원장인 조병호가 말하는 성경통독의 개념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병호(2007)는 성경을 통(通)으로 보자고 말하며⁴³, 통으로 성경을 보는 여러 방법을 제시했다.

⁴² 노회경, “기독인 43% “성경 통독 경험 없다,” 국민일보, 2008.02.13.

⁴³ 조병호, *통이다 랫츠통* (서울: 통독원, 2007), 55-57.

그중 두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성경을 개인적(Personal), 가정적(Family-oriented), 한 민족적(National), 모든 민족적(All-Nations)인 관점에서 통(通)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는 성경 ‘강해(講解)’와 성경 ‘통독(通讀)’, 각각의 장점을 통(通)하게 하는 것이다. 서양적 특징과 동양적 특징, 이 두 가지 장점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조병호, 2012).⁴⁴

通자는 ‘통하다’나 ‘내왕하다’, ‘알리다’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通자는 辶(쉬엄쉬엄 갈 착)자와 甬(길 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甬자는 고리가 있는 종을 그린 것이다. 通자는 본래 ‘곧게 뻗은 길’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로 甬자는 속이 텅 빈 종처럼 길이 뻗 뚫려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길이 뚫려 있으니 이동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그래서 通자에서 말하는 ‘통하다’나 ‘내왕하다’는 것은 길을 가는 데 있어 거침이 없다는 뜻이다.⁴⁵

조병호(2020)는 성경통독을 구체적으로 다음 3가지로 규정한다. 첫째,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이다. 이는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보고,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동양의 《삼국지》나 서양의 《로마 제국 쇠망사》를 읽을 때, 순서대로 첫 권부터 마지막 권까지 전체를 다 읽어 내려가듯이 성경도 그렇게 전체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성경 한 구절이 주는 메시지도 있고, 한 장이 주는 메시지도 있고, 성경의 각 권이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성경 전체가 가져다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매일 몇 절씩 묵상하는 방법으로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찾기

⁴⁴ 조병호, “성경 통으로 보기 한국교회와 성경통독의 역사, 월간목회 3월호(2012).

⁴⁵ 네이버국어사전, <https://hanja.dict.naver.com/hanja?q=%E9%80%9A> (2021년3월7일 접속).

어렵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부분적으로 말씀을 접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보는 부분은 계속 보게 되고, 보지 않는 부분은 계속 보지 않게 됨으로, 영의 양식인 성경을 편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한다(조병호, 2020:12).⁴⁶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말하지만, 성경 전체보다는 부분만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예화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뿐, 정작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다.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교에 다녔지만 정작 교과서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면 곤란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그만큼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 읽기에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아서이다. 그래서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역사순으로 재배열해서 읽는 것이다. 성경 66권을 역사 순서대로 읽는 것은 성경을 효과적으로 통독하는 방법이다. 오늘날 성도들이 보고 있는 성경이 취하고 있는 주제별, 장르별 순서보다는 역사 순서를 따라 읽어가면서 각 부분이 전체 속에서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병호는 강조한다. 오늘날 성도들이 보고 있는 기존의 성경은 역사순으로 편제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주로 장르별 편제를 따르고 있기에 율법서끼리, 역사서끼리, 시가서끼리, 예언서끼리 묶여 있다. 그러므로 성경통독을 할 때에는 성경의 각 권이 가진 저마다의 역사적인 순차성을 고려하여 역사순으로 재배열하여 읽는 것이

⁴⁶ 조병호, *통성경길라잡이-개정증보판* (서울: 통독원, 2020), 12.

효과적이다(조병호, 2020:13).⁴⁷

다시 말해, 성경 전체를 장르별이 아닌 역사순으로 재배열해서 성경을 읽으면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에, 각 시대와 그 시대를 이끌었던 왕들과 선지자들을 연결해서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표 5, 6>은 조병호(2015:19)에서 성경을 읽는 순서를 역사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5> 구약 통독 순서(조병호, 2015:19)⁴⁸

구약 성경통독 순서	
원역사와 족장 시대	창 1~11장 → 창 12~50장
모세와 출애굽 시대①	출 → 레
모세와 출애굽 시대②	민 → 신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	수 → 샬 → 룻
왕정 시대① 통일왕국 시대 1	삼상 → (대상 1~10장) → 삼하(대상 11~29장) → 왕상 1~2장
왕정 시대② 통일왕국 시대 2	왕상 3~11장(대하 1~9장) → 잠 → 아 → 전 → 욥 → 시
왕정 시대③ 분열왕국 시대	왕상 12~22장, 왕하 1~14장(대하 10~25장) → 암 → 호 → 욥 → 왕하 15~20장(대하 26~32장) → 사 → 미
왕정 시대④ 남유다 퇴락기	왕하 21~23장(대하 33~35장) → 습 → 합 → 나 → 율 → 왕하 24~25장(대하36장) → 렘 → 애 → 읍
바벨론 포로 시대	겔 → 단
페르시아 시대	스 1~4장 → 학 → 슥 → 스 5~6장 → 예 → 스 7~10장 → 느 → 말

⁴⁷ Ibid., 13.

⁴⁸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5), 19.

<표 6>신약 통독 순서(조병호, 2015:24)⁴⁹

신약 성경통독 순서	
예수님의 사역①	마태복음
예수님의 사역②	마가복음
예수님의 사역③	누가복음
예수님의 사역④	요한복음
교회의 시작과 열두 사도들의 사역	행 1~12장
사도 바울의 사역과 바울서신①	행 13장~18:22 → 살전 → 살후 → 갈 → 행 18:23~19장 → 고전 → 고후
사도 바울의 사역과 바울서신②	행 20:1~6 → 롬 → 행 20:7~28장 → 엡 → 빌 → 골 → 몬 → 딤펬 → 딤후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	히 → 약 → 벧전 → 벧후 → 유 → 요일 → 요이 → 요삼 → 계

셋째,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성경통독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으로, 단어, 구절, 문장, 문단, 결국 성경 66권을 읽어가는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도 읽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조병호(2020)는 성경은 펼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이고, 성경통독은 지식만을 쌓기 위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삶을 배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깨달아 가야 한다고 말한다.⁵⁰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셨는지, 언제 슬퍼하셨는지가

⁴⁹ Ibid., 24.

⁵⁰ 조병호, *통성경길라잡이- 개정증보판*, 통독원, 13, 2020.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성경통독의 ‘대중화, 학문화, 세계화’

성경 말씀을 전체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을 부분으로 보면, 자신이 보고 싶은 말씀만을 찾아보는 편향적인 성경 읽기로 치우치기 쉽다. 자기가 보고 싶은 성경 구절만 선택해서 보는 것은 때로 위험하기까지 하다.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가장 균형 있게 성경을 보는 방법이다. 성경 전체 내용을 살펴 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다. 성경의 일부만이 복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선물하신 성경 전체가 복음이기 때문이다. 성경 전체가 복된 말씀이다. 그렇기에 성경의 어느 부분은 열고 어느 부분은 덮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체를 부지런히 살펴서 공부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한 성경 공부 방식이고, 이 방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는다.

1989년 이후에는 성경통독의 ‘대중화, 학문화,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여러 경로의 ‘성경’과 ‘통독’의 만남이 1990년대 이르러 더 다양한 형태를 띠고 발전한다.

성경통독의 대중화

성경통독원 조병호가 성경통독을 대중화, 학문화, 세계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1989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청장년, 목회자 등 대상별로 운영되는 ‘숲과 나무 성경통독 캠프’가 그 좋은 예이다. 이를 기반으로 2000년 3월, 성경통독과 큐티(QT)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성경통독 방식의 묵상지 《큐티

성경통독》(구: 월간 숲과나무, 현재 143호 발간)가 창간되었다. 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장씩 역사 순서에 따라 QT를 진행하며 본문의 숲과 나무를 살펴보는 형식을 취한다. 2001년 5월 CTS 기독교 TV-밀레미엄특강 프로그램을 통해 TV방송 최초로 ‘성경통독’이 등장하게 되었다. ‘조병호 목사의 성경통독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10회에 걸쳐 방송되었다. 2002년 7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총무 전용환 목사)에서 ‘감리교 교육의 해’를 맞아 ‘감리교인의 성경통독 운동’을 권장하며 “성경통독 전문기관인 숲과나무 성경통독(원장 조병호 박사)의 통독 프로그램을 추천한다”라는 내용의 추천 글을 감리회 소속 교회에 회신하였다. 이것은 한국 교단 기구적으로 사상 최초의 ‘성경통독’에 대한 공식적 언급으로 볼 수 있다. 2004년 10월 22일 자 《동아일보》에 ‘성경,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바라- 성경통독 운동 조병호 목사 지침서 펴내’라는 제목으로 ‘성경 통독법’이 소개되었다. 해당 기사에서 소개된 성경 통독법은 첫째로 맞춤형 통독 시간표와 통독량을 정해 실천하고, 둘째로 성경을 역사적 순서대로 재배열해 읽으며, 셋째로 구절에 얽매이지 말고 숲을 보듯이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다⁵¹. 2006년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교단지인 《기독교보》에는 1년간 45회에 걸쳐 ‘조병호 목사의 성경통독’ 코너가 연재되었다. 이는 교단 언론에 연재된 최초의 성경통독 연재물이다.

⁵¹ 조병호, “성경 통으로 보기 한국교회와 성경통독의 역사,” *월간목회* 3월호(2012).

성경통독의 학문화

성경통독 학문화를 위해서 전문 도서들이 출간되었다. 2004년 9월 성경 전체를 통(通)의 관점으로 쓴 《성경통독》을 비롯하여 어린이, 청소년, 평신도, 리더, 목회자 그리고 새신자 모임, 소그룹 모임 등 각 분야와 대상을 고려한 성경통독 교재를 통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30여 종의 책이 출간됐다. 성경통독의 학문화는 대학 교과목으로 이어졌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2007-1학기와 2008-1학기, 2008-2학기에 걸쳐 학부 1학년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성경통독’이 개설되었다. 2011년도에는 침례신학대학교에서 2011-1학기 학부 교양과목으로 ‘성경통독’이 개설되었다. 2009년부터 성경통독원에서 성경통독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성경통독 렉처러 코스(Bible Tongdok Lecturer Course)’가 개설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총 12주 과정으로 성경통독과 ‘통(通)’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까지 목회자 1,000여 명 이상이 이 과정을 이수하였다⁵².

성경통독의 세계화

성경통독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2003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뷔르템베르크 주교청 선교대회(Annual Mission Festival Evangelical-Lutheran Church in Wuerttemberg, 주제: ‘성서와 세계교회’)를 기점으로 성경통독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이때 ‘한·독 목회자 공동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독일 목회자와 평신도에게 한국의 ‘성경통독’을 소개했다. 2007년에는 ‘21세기

⁵² 성경통독원 제공.

동서동행 미래교회 콘퍼런스(주제: 21세기는 通이다!)'가 개최되었다. 그때 미국 드루대학교 교수인 레너드 스위트 박사(Dr. Leonard Sweet)는 성경통독과 관련하여 자신이 성경을 읽는 방식은 바로 이 ‘통독’을 통해서 전적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통독을 통해서, 살아 있는 말씀을 읽고 깨닫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⁵³,

54 .

한국은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세계사적 담론들을 압축적으로 경험했고, 그러한 경험의 축적과 동시에 복음화를 이룩해 왔다. 또한 한국교회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동양적 관계 중심 사고 기반 위에서 서양의 기독교를 받아들여, 서양식 성경 해석의 아쉬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성경 읽기 방법인 성경통독을 발전시켜 왔다. 동양적 관계 중심의 생각을 통해서 성경을 봄으로써, 성경 해석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을 발견한 것이다. 물론 한국 기독교는 지난 120년 동안, 서양 기독교를 변형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고, 특히 서양의 복음주의적 신학을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서양 기독교의 무조건적 모방과 수용이 아니라, 동양적인 풍토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한국의 기독교’가 생성되었다. 이는 동양 사상이나 동양 종교를 기독교 경전 해석에 이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 관계 중심적 시각에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에 담긴 관계성을 읽어냈다는 의미이다. 계약 중심의 관점을 토대로 발전해 온 서양 신학의 수용 위에, 관계 중심적 시각을 더함으로써 계약 중심의 관점으로만 보기

⁵³ Now as we come alive to the Living Word we gotta come alive to it in this Tongdok fashion. And my whole reading of the Bible has changed because of this Tong method of reading the Scriptures. Dr. Zoh is the one who ha helped me to understand how to bring the East and the West together for me to come alive to the Living Word.

⁵⁴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6-17.

어려웠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것이다(조병호, 2012:1-5)⁵⁵.

한 예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놓고, 지금까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서양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해 왔다. 그러나 직관적이고 정과 마음을 기본으로 하는 한국의 정서를 가지고 성경을 통으로 읽어갈 경우에는, 노아의 심판 때 40주야 동안 내린 그 많은 빗물을 보며 하나님의 눈물을 생각하게 된다. 심판, 그 이면에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눈물이 있는 것이다. 당신의 창조물들을 쓸어버리셔야 하는 그 속타는 심정을 동양적인 정서를 가진 우리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것이다. 즉, 한국 기독교는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으며, 동서양이 조화된 토양 위에서 관계와 계약을 통으로 아꼈다. 그것이 바로 ‘성경통독’과 ‘통으로 성경을 읽는 방식’이다. 바로 이 같은 점을 서양 교회의 한 축으로 대변되는 미국 교회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서 크게 주목하고 반응하고 있다. 서양 기독교는 계약 중심의 문화적 풍토에서 성경을 읽어온 한계를 인식하고, 동양 기독교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성경을 통으로 보는 성경통독 방식은 한국 교회가 놓인 여러 사회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은혜이다. 이제 한국 기독교는 동서양 기독교에 성경 읽기의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미국 교회와 중국 교회에 이러한 성경 읽기 방식을 소개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경의 생각으로 세계를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량이 되어주는 것이 한국 교회의 사명인 것이다. 특히 그동안

⁵⁵ 조병호, “성경통독의 역사,” *월간목회* 3월호(2012), 1-5.

쌓아왔던 한국 기독교의 경험은 현재 세계인이 주목할 만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기독교에 소중한 도움이 될 것이다. 20세기 중국은 공산주의 이념을 핵심 가치로 추구해 왔으나, 이제는 이러한 이념 추구에서 서양의 자본주의 방식의 이점을 취하는 형태로 돌아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문화혁명 이후 변화되기 시작하다가 1980년대 중반 무렵부터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후 중국의 기독교는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공동체의 핵심 사상이 바로 성경이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인생들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과 진리를 꿈꿀 수 있도록 원천적인 힘을 제공해온 성경이, 21세기 초두에도 여전히 동양과 서양, 북미와 남미, 유럽과 아프리카를 막론하고, 지구촌의 모든 인생들에게 진리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의 성경통독은 서양 신학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130년에 걸쳐 쌓아온 한국 교회의 다양한 경험과 결과를 중국 교회에 제공함으로써, 중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겪어야 하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관계 중심의 동양적 토양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계약 중심의 서양 기독교 특징을 조화시켜 낸 점은 동양과 서양의 만남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적절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바로 동서양 전체가 초기교회의 사상적 원형을 재발견하는 시점이다. 이때, 동서양의 동반자적 길을 진정 옳은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도이자, 새로운 미래를 이끌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바로 성경이다. ‘관계’와 ‘계약’이 공존하는 책인 이 성경을 통으로 보는 말씀 읽기의 새로운 방법론은 한국 교회가 서양 교회, 나아가 아시아

교회 및 세계 교회에 선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⁵⁶

이제 한국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세계의 변화, 기독교의 움직임을 읽고, 그 안에서 발견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하나님의 세계경영의 계획으로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의 소명과 목적을 깨닫고 시대적 사명에 응답할 때, 교회와 민족과 세계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통(通) 방법의 한 기반인 한국 성경통독 역사와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 보았다. 통(通)의 방법론은 지난 2007년 조병호가 인식론의 한 방법으로 주장한 것이다. 강해(講解)는 대체적으로 서구적이며, 분석적인 특징이 있다. 반면 통독(通讀)은 동양에서 배움과 지식연구의 과정 가운데 유용하게 사용하던 방법이다. 성경을 읽되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이다. 이를 테면 《삼국지》나 《태백산맥》 같은 대하소설을 읽을 때 순서대로 첫 권부터 마지막 권까지 전체를 읽어 내려가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성경 내용의 파편화를 막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조병호는 ‘강해와 통독’의 만남은 한국의 문화사적 공간이 빚어낸 결과라고 했다. 이를 잘 활용하며 상호 침투시켜 ‘통(通)의 방법화’로 성경을 읽음으로, 결국 ‘성경의 풍요’를 세계 교회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소망한다고 밝혔다.⁵⁷

⁵⁶ 조병호, “성경 통으로 보기 성경과 통페러다임1 성경통독과 통신학,” *월간목회* 4월호(2012).

⁵⁷ <https://tongdokwon.tistory.com/134> (2021년 2월 11일 접속).

5박 6일 성경통독의 역사

성경통독원의 성경통독 시작

조병호가 성경통독원에서 성경통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바로 ‘사역다운 사역’을 하기 위함이었다.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던 1988년, 그는 당시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으로서, 한반도 남쪽 지리산 근처에 위치한 ‘외고’라는 작은 마을을 주말마다 찾아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사역지 외고는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9시간 이상을 가야 하는 작은 산골 마을이었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겨우 한 가정뿐이었다. 그는 1988년 한 해 동안 주말마다 그곳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 일은 그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이었다. 그러나 혼자서 1년 동안 그 마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해 여름 1주간 정도 시간을 내어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하자고 설득하였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40여 명이 그 해 8월 둘째 주에 외고 마을의 모든 분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행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한시 미션이 시작되었다. 이 사역의 이름을 ‘뿌리기 사역’이라고 붙였다. 이 사역의 이름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성경 구절에서 따온 것이었다(조병호, 2004:652)⁵⁸.

뿌리기사역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988년 이후, 매년 1년 52주 중 적어도 한 주간만은 현재의 삶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삶을 흉내라도 내어보겠다고 결심한 이들이 사역 수행 몇 달 전부터 모여 사역지를 답사하고, 168시간의 기도 탐을 쌓고,

⁵⁸ 조병호, *성경 통독 이렇게 하라* (서울: 땅에쓰신글씨, 2004), 652.

바울처럼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 자비량 사역비를 마련한 후, 8월 둘째 주 지리산 자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다.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넙죽넙죽 인사 잘하는 예절 바른 젊은이들로 다가가서, 오랜 농사일로 딱딱하게 굳은살이 박인 시골 어르신들의 손과 발을 주물러드리고, 그분들의 말벗도 되어드린다. 고추 따는 일이며 명석 마는 일이라도 도와드리면서 가운데 그분들의 마음에 한 발짝 더 다가가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자 애쓴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마음을 열릴 때쯤, 정말 하고 싶어 가슴에 담아온 복음, “하나님께서 어르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한마디를 삶의 진실한 고백으로 담아 소중하게 전해 드리는 것이다(조병호, 2004:653).⁵⁹

이 땅에 태어나 한평생 정직하게 땅을 일구며 살아오신 분들 중에 “예수 믿으시오” 라는 한마디를 한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으면 하는 소원으로, 먼저 복음을 받은 이들이 ‘복음의 빛진 자’ 라는 생각으로, 매년 그 일을 반복한 것이다. 특별히 그 기간에 개최한 3일간의 노천 숲과 나무 학교와 청소년 캠프를 통해 만난 마을의 어린이들, 청소년들과는 사역자들이 사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편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일대일로 관계를 이어가고, 이듬해 봄방학 때 그들을 서울로 초청하여 지난 여름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에 다시 한번 물을 주는 ‘물주기사역’ 을 진행하였다.

조병호는 이와 같은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시골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섬기러 가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려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은

⁵⁹ Ibid., 653.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중,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 기도하며 성경을 읽기로 한 것이다. 성경 한두 구절만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사역자들과 함께 모여 성경을 통독하기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좀 더 ‘사역다운 사역’을 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바로 ‘성경통독’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 시대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잘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했으면’ 하는 것이 성경통독을 시작하게 된 동기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말씀을 통독하고 날 때마다 그 말씀을 더욱 잘 실천하고픈 소망과 꿈이 샘솟아 난다고 조병호는 말하고 있다(조병호, 2004:654)⁶⁰.

성경통독원의 두 가지 사역, 즉 성경통독과 무교회 지역 선교 사역은 이렇게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다. 성경통독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 방식을 무교회 지역 선교 사역에 임하는 사역 방식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역을 위한 물질적 준비의 원칙은 바울의 사역 방식을 본받아 자비량으로 정하였고(고전 9:6-7), 또한 그 마을 가정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에게 미리 준비해 간 선물을 전해 드리는 방식으로는, 사역자들이 그 마을을 떠나기 바로 전날 깊은 밤에 몰래 전달하고 다음날 이른 새벽 그 마을을 떠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바울의 ‘받음직한 섬김’의 방법을 따랐다. (고전 9:6-7)

성경통독원의 성경통독 역사

⁶⁰ Ibid., 654.

1989년~2010년에 진행되었던 성경통독의 대략을 정리했다.

<표7> 성경통독원에서 진행된 성경통독⁶¹

년도	구분	일시	년도	구분	일시
1989	대학일반	2.7-2.10	2002	대학일반	1.7-1.11
1991	대학일반	1.28-2.2		대학일반	7.8-7.12
	대학일반	7.8-7.13	2003	대학일반	1.13-1.17
1992	대학일반	1.20-1.25		가족캠프	8.18-8.22
	대학일반	7.6-7.11	2004	대학일반	1.5-1.9
1993	대학일반	1.25-1.30		대학일반	7.12-7.16
	대학일반	7.5-7.10	2005	대학일반	1.3-1.7
1994	대학일반	1.17-1.22		대학일반	7.11-7.14
	대학일반	7.4-7.9	2006	대학일반	1.9-1.13
1995	대학일반	1.16-1.21		대학일반(신약)	7.10-7.13
	중고생	1.17-1.21		대학일반(구약)	9.25-9.28
	대학일반	7.17-7.22		대학일반(구약)	10.23-10.26
1997	대학일반	2.20-2.25		대학일반(신약)	11.20-11.23
	대학일반	8.18-8.23	2007	대학일반	1.1-1.5
1999	대학일반	1.25-1.30		대학일반(구약)	2.26-3.1
	대학일반	7.5-7.10	2008	대학일반	1.7-1-11

⁶¹ 성경통독원 제공

2000	대학일반	1.10-1.15		대학일반	7.14-7.18
	중고생	1.17-1.21		대학일반(장신)	8.18-8.22
	구세군	6.19-6.23	2009	대학일반	1.5-1.9
	대학일반	7.3-7.8		대학일반	7.13-7.17
	수도권	7.24-7.28	2010	대학일반	1.4-1.8
	호남	7.24-7.28		대학일반	1.11-1.15
	영남	7.24-7.28		대학일반(구약)	2.9-2.12
2001	대학일반	1.15-1.20			
	장신대(1차)	1.18-1.23			
	장신대(2차)	1.29-2.3			
	대학일반	7.2-7.6			
	주안장로(구약)	7.9-7.13			
	주안장로(신약)	7.16-7.20			

5박 6일 성경통독의 실제

5박 6일 성경통독의 진행

5박 6일 성경통독은 참여자가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성경을 통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서구에서의 방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서구는 성경통독을 할 때 모여서 하지 않는다.

성경을 읽는 데는 극복해야 할 해로운 선입관이 많이 있다. 대개 성서를 읽을 때 바로 오늘이라는 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서를 읽는다는 것을 보통 하루의 생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짧은 몇 구절을 뽑아 읽는 것으로 만족해한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은, 지침이 되고 생의 표어가 되는 짧은 성구가 성서를 통독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고, 대신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성서는 마디마디 떨어지는 구절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전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전체로서 성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 끝없는 내적인 관련에서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증언으로써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신약과 구약의 관계, 약속과 성취의 관계,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 신앙과 복종의 관계, 가짐과 기다림의 관계에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경건한 모임에서 시편의 기도를 드리는 외에 구약과 신약을 오래 읽는 일이 빠질 수 없는 것이다. (Bonhoeffer, 2004:64-69)⁶²

역사순으로 재배열한 성경통독

현대의 성경은 66권의 순서가 장르별로 묶여 있다. 그 순서는 모세오경 → 역사서 → 시가서 → 예언서 순이다. 구약성경의 시작인 모세오경은 장르별 성경이나 역사순 성경이나 그 순서의 차이는 없다. 그런데 역사서와 예언서를 보면 구별이 된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역사서와 예언서를 한곳에 모아두고 있는데 특히 예언서 부분에서도 장이 많으면 대예언서로, 장이 적으면 소예언서로 부르면서 모아놓았다. 그래서 지금의 성경을 가지고 읽다 보면 다소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

조병호(2020:330)는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으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역사서인 ‘왕정 500년’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⁶² 디트리히 본회퍼,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64-69.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읽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기록을 각각 때를 맞추어 읽으면, 그때의 시대 상황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B.C. 8세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역사 기록을 읽으며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의 기록 아모스, 호세아, 요나를 같이 읽는 것이다⁶³. 모세오경을 읽고, 왕정 500년의 역사와 함께 각각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글을 역사순으로 재배열해서 읽고, 바벨론 포로 이후의 기록인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된 페르시아 7권을 읽으면 구약 전체가 제사장 나라의 이야기라는 것과 율법과 선지자가 결국 신약성경의 예수 이야기로 귀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조병호, 2020:331)⁶⁴, 이러한 것들이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을 때 장점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물 흐르듯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 통독사들의 통독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온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온다. 마태복음 27장 45~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크게 소리 지르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만약 이 본문을 눈으로만 읽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사력을 다해 소리 지르신 부분을 끝내

⁶³ 조병호, 52과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20), 330.

⁶⁴ Ibid., 331.

감도 잡지 못할 것이다(조병호, 2017).⁶⁵ 그러나 성경을 많이 통독한 전문 통독사들이 성경을 통독함으로 눈으로만 봤을 때 감도 잡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인도자의 성경 숲 설명

성경을 통독할 때 얻게 되는 유익함 중 하나가 바로 ‘숲’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분을 분석하고 쪼개어 자세히 아는 방법에는 익숙하나, 그 부분을 이루고 있는 전체를 한눈에 파악하는 일에는 익숙지 못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체 없는 부분은 방향을 잃기 쉽다. 또한 숲을 잘 봐야 나무의 의미도 명확해진다. 그래서 먼저 성경의 ‘숲’을 둘러봐야 한다. 한 인물의 숲, 한 사건의 숲, 그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경의 숲과 나무를 보는 것은 오직 성경통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조병호, 2004:24).⁶⁶

5박 6일 성경통독 타임테이블

<표8> 5박 6일 성경 읽기 프로그램(조병호, 2004:683)⁶⁷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오전		3마당 숲 1, 2	6마당 숲 1, 2	10마당 숲 1, 2	15마당 숲 1	19마당 숲 1, 2, 3

⁶⁵ 조병호, 성경통독 집회 강의중, 2017.

⁶⁶ 조병호, 성경통독 이렇게 하라 (서울: 땅에쓰신글씨, 2004), 24.

⁶⁷ Ibid., 683.

		민 10:11-36장	왕상 3-10장 (대하 1-9장) 시 27, 127편, 잠, 아	에, 스, 학, 습	요	히, 약, 벧전, 벧후, 유, 요일, 요이, 요삼
		3마당 숲 3	6마당 숲 3, 4	10마당 숲 3, 4	15마당 숲 2, 3	20마당 숲 1, 2
		신, 시 90편	왕상 11장, 전, 욥	느, 말	요	계
오후	1마당 숲 1, 2	4마당 숲 1	7마당 숲 1, 2	12마당 숲 1, 2	16마당 숲 1, 2	
	창1장-25:11	수 1-12장	왕상 12장 -왕하 14장 (대하 10 -25장) 암, 호, 욥	마	행 1-12장	
	1마당 숲 3	4마당 숲 2	7마당 숲 3	12마당 숲 3	17마당 숲 1, 2	
	창 25:12-36장	수 13장 -삿 2:10	왕하 15 -20장 (대하 26 - 32장) 사, 미	마	행 13장 -18:22, 살전, 살후, 갈	
	1마당 숲 4	4마당 숲 3, 4	8마당 숲 1	13마당 숲 1	17마당 숲 3	
	창 37-50장	삿 2:11 - 21장, 룻	왕하 21 -23장, 대하 33, - 35장), 습, 합, 나, 욥	막	행 18:23 -20:16 고전, 고후	
저녁	2마당 숲 1	5마당 숲 1, 2	8마당 숲 2	13마당 숲 2, 3	17마당 숲 4	
	출 1-18장	삼상 1-31장 (대상 1-10장)	왕하 24 -25장, (대하 36장), 렘	막	행 20:17 -21:16, 롬	
	2마당 숲 2, 3	5마당 숲 3	8마당 숲 2, 3	14마당 숲 1	18마당 숲 1, 2	

	출 19장 -레 10장	삼하 1-10장 (대상11- 20장), 시60편	렘, 읍, 애	눅	행 21:17 -28장	
	2마당 숲 4	5마당 숲 4	9마당 숲 1, 2	14마당 숲 2, 3	18마당 숲 3	
	레 11장 -민 10:10	삼하 11-24장 왕상 1-2장 (대상 21- 29장) 시편 5개, 그 외 시편	겔, 단	눅	딤후, 딤후	

제 IV 장

5박 6일 성경통독의 특성

통성경과 성경통독

통성경이란?

‘통通박사’라는 별칭이 붙은 조병호는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즉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라는 역사순의 의미가 담겨 있는 ‘통’의 방법을 제시했다. 조병호가 말하는 통성경은 다음과 같다.

“통성경은 성경 강해와 성경통독의 통합입니다. 100배, 100으로 묶는 거죠. 서양의 특징인 합리와 이성의 측면, 성경의 사실 관계를 분석하는 것과 동양의 독서법의 특징인 통독, ‘독서백편의자현’이라는 말처럼 한 책을 여러 번 읽으면 그 의미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의미에서 통독을 같이 두 가지 장점을 취합해 보는 것입니다. 즉 성경 66권의 내용을 요절로 파편화하지 않고 큰 줄기를 따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혼자 통독하려면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통독하면 반드시 그 기간 안에 전체를 보게 됩니다. 결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흐름의 내용을 파악하면 이후 부분 부분을 보더라도 오해하지 않고 읽을 수 있습니다.”⁶⁸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자는 것이다. 성경은 한 권이면서 동시에

⁶⁸ <https://www.sisa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8> (2020년11월12일 접속).

66권이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통으로 살펴봐야지만 성경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조병호는 성경을 큰 그림으로 공부하는 방법으로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공부하는 것,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공부하는 것, 제사장 나라, 5대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공부하는 것이라 말한다. 즉, 통성경은 성경 66권 전체를 과편화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로 소리 내서 읽는 것⁶⁹이라고 말한다.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통으로

성경에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시간과 공간과 인간은 각각 별개로 보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통으로 함께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등은 성경 속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그 절기가 행해지는 장소가 있고, 그 시간과 그 장소에는 인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 속의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과 5,000여 명의 인물을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인물 따로, 과편처럼 별개로 보지 않고 그 시간, 그 공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지를 통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성경을 통으로 보는 것이 바로 통성경이다(조병호, 2009:19)⁷⁰.

예를 들어 안식일을 어떻게 통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조병호는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로 하나님의 법, 둘째로 시간. 셋째로 공간, 넷째로 하나님의 법을 받는 인간의 관점에서 통으로 안식일을 이해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과 그 법을 인간이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법은 땅과 직결된다는 것과 그

⁶⁹ 통성경학교, 통독원, 318.

⁷⁰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9), 19.

법은 시간과 직결된다는 것, 이렇게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를 떼놓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⁷¹.

성경은 공간 개념이 투철하다. 아브라함이 멋진 이유는 지시할 땅으로 갔기 때문이고, 천 년 후에 다윗이 다윗이 된 이유는 예루살렘을 초점화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법 중에 하나는 그 땅을 70년 동안 비우라는 것이 있다(렘 25:11-12). 그리고 예수는 왜 예루살렘에 죽기 살기로 올라갔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서 예수는 땅 끝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공간 개념이 중요하다.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대체로 시간이 있다, 없다로 이야기한다. 조금 더 확대하면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것이고, 조금 더 내용 있게 말하려면 고대사, 중대사, 근대사, 현대사, 그리고 미래사 이렇게 나눠서 말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시간에 대해서 카이로스, 크로노스 즉 질적 시간대, 양적 시간대로도 말할 수 있다. 시간의 세로축, 가로축이란 표현도 가능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이 시간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경은 시간에 대해 세 가지로 말한다. 첫째, ‘알파와 오메가’ 이다. 이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 이 이야기는 하지 마라’, ‘때가 찬다’ 는 표현도 시간과 관계된 중요한 표현이다. ‘가데스바네아의 하루를 1년으로 삼겠다’ 고 해서 40년이 됐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서 2세대 곧 70년을 보내고 와야 한다’ 는 표현도 있다. 시작과 끝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회년’ 을 말한다. 성경이

⁷¹ 조병호, 성경통독원 성경통독 프로그램 강의 중.

말하는 시간의 개념 셋째는 ‘초림과 재림’이다.⁷²

다음으로 눈에 보이게 존재하는 공간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공간과 관련해서는 땅값을 얘기할 수 있다. 조금 더 넓히면 동서남북으로, 위도와 적도로, 그다음 5대주 6대양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공간의 개념이다. 그런데 성경의 공간에 관한 이야기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지시할 땅’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땅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띤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는 직선거리만으로도 1800km를 걸었다. 둘째, 땅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는 ‘여호와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다. 이것은 법궤가 만들어지고 난 후 이 법궤가 놓인 곳이 여호와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었다. 그다음에 다윗 때 성전을 지음으로써 예루살렘이 여호와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고정이 된다. 그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그 땅을 70년 동안 비우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서 여유 있게 십자가를 지셔도 될 터인데,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거기에서 땅 끝을 말씀하신다. 바로 이 ‘땅 끝’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세번째 공간 개념이다. 예수님이 땅 끝을 언급하셨다(행 1:8). 이처럼 공간 이야기를 할 때 이 세 가지가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포괄적으로 담겨 있으며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경영을 이뤄 가셨다.

민족과 국가를 통으로

민족이 국가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민족이 한

⁷² Ibid.

국가를 가질 수도 있고 두 국가를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여러 민족이 한 국가를 가질 수 있다.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탄 이유와 느헤미야가 암살 위협을 당한 이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민족은 있으나 국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이 세운 국가 이야기를 우리가 묶어서 통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전술한 대로 성경의 다섯 가지 생각 중에 마지막이 성경은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민족적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 대한 책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성경에서 민족, 모든 민족이라는 얘기는 너무 중요한 개념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가지고 이스라엘 한 민족을 만드는 데 500년이 걸리셨고, 그 민족을 가지고 국가를 이루는 데 40년이 걸리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해방된 민족으로서 독자적 존재가 가능했다.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40년의 시내 광야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국가를 주셨다. 그 순간 그 민족이 가진 국가는 세계 최고로, 바로 율법과 선지자, 제사장 나라와 제국의 개념을 가진 나라가 된다.⁷³

민족이 국가를 가졌다, 민족이 국가를 못 가졌다는 얘기는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 때’의 얘기고, 민족이 국가를 가지는 과정은 ‘시내 산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민족이 제대로 된 국가를 가졌다는 때가 사울을 지나 ‘다윗 때 이야기’이고, 한 민족이 두 국가로 나뉘어졌다는 얘기는 ‘솔로몬 사후’에 한 민족 두 국가로 나뉘어졌단 얘기고, 그다음으로 그 민족이 국가를 가졌다가 놓쳤다는 얘기가 ‘바벨론 포로 때’의 이야기이다. 민족과 국가에 관한 이 두 가지 담론은 모세 때부터 신약성경 시작할 때까지 한 번도 생략된 적이 없다. 그러니

⁷³ Ibid.

성경 전체를 볼 때 민족과 국가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제국과 제사장 나라를 통으로

제국의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의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태워진 것과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 출애굽 사건, 사마리아인의 등장,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산헤드린 공회, 삭개오와 마태의 등장도 제국과 별개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성경에는 제국 이야기가 5개나 등장한다. 물론 애굽 또한 제국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이는 본격적인 제국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다. 그런 제국들은 늘 정책을 가지고 있다. 유대 민족이 5대 제국과 끊임없이 부딪쳐 온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

제국과 제사장 나라는 모두 세계적이다. 즉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공통점은 ‘세계적’이라는 것이다. 모든 민족을 복 받기 하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민족 히브리 민족이 세운 나라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제사장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제사장 나라라는 용어와 실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때’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났지만 사실 이미 모세의 5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이 개념을 주셨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서 500년이 지난 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렇게 아브라함 후손인 히브리 민족이 가진 나라가 제사장 나라 개념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성경의 5대

제국을 경영하셨다고 봐야 한다(조병호, 2012)⁷⁴.

성경의 제국 이야기는 제사장 나라 이야기를 핵심 골조로 전제한다. 제국, 제사장 나라는 기본적으로 다 ‘모든 민족’을 전제로 한다. 제사장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이 모세 때 정확하게 ‘A kingdom of priest’라고 본격적으로 사용하신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 받게 하시겠다는 내용과 표현만 조금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100퍼센트 같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대되고 채워진 것이다. 제사장 나라는 모세 때 히브리 민족이 애굽이 제국을 만들어갈 때의 상황을 경험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애굽에서 사내 아이로 태어난 모세는 애굽의 정책에 의해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해야 할 위기였기에 그 가족에 의해 갈대 상자에 태워진 것이다. 히브리 민족이 국가를 가지지 못한 노예 민족이었기 때문이고, 또 한편 애굽의 제국주의를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애굽 입장에서는 타 민족을 정복하기 위해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내 노예 민족들의 인구조절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제국주의라는 말은 한 민족이 국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모든 민족은 국가를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국가를 가진 민족이 위에 서는 것이며 다른 모든 민족은 국가를 가지지 못했기에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족의 위아래가 나누어져서 노예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애굽을 경험하고 나온 이스라엘에게 모든 민족을 발 아래에 두는 나라가 아닌, 모든 민족의

⁷⁴ 조병호, “성경과 통(通)페러다임 - 역사순 성경통독,” 월간목회 5월호(2012).

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에 모세가 정확하게 제국은 저런 것이고, 제사장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뚜렷하게 설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끊임없이 계시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제사장 나라 사명을 말씀하셨다. 한 민족이 제사장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계시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모세가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조병호, 2012).⁷⁵

제국의 정책과 하나님의 세계경영을 통으로(조병호, 2012)

제국의 정책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책이다. 로마 총독은 예수님께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 있다(요 19:10)고 말했다. 로마 총독은 예수님을 로마의 처형방식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정하신 예수 십자가를 완성하실 도구였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데 제국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을 촉구하시며 5대 제국을 하나님의 세계경영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앗수르 제국 정책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제국의 정책은 남유다 멸망과 바벨론 포로와 연결되어 있다.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정책을 모른다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과 신약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⁷⁶

이처럼 성경 전체의 내용은 5대 제국의 정책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떼려야 뗄 수 없다. 따라서 제국의 정책과 하나님의

⁷⁵ Ibid.

⁷⁶ Ibid.

세계경영을 통으로 봐야 한다.

성경을 읽을 때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 민족과 국가, 제국과 제사장 나라, 제국의 정책과 하나님의 세계경영 등 통의 키 콘셉트를 잘 살펴 가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하나님이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 계시해 주시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통성경을 기반한 성경통독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 알기

성경통독의 목적은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 있다. 창세기 1장에서 우주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께서 얼마 후, 창세기 6장 6절에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창세기 1장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가 얼마 후,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깊은 한탄과 근심의 무게를 한 자락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다(조병호, 2016:60).⁷⁷

노아의 대홍수 부분에서 비둘기가 무엇을 상징하며 40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의 지엽적인 부분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이 사건 전체를 계획하고 행하셨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분의 속타는 사랑을 느끼기 어렵게 되며 자칫 성경의 ‘숲’을 파악하지 못하고 ‘나무’에 얽매어 성경을 오해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다면,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시대 가운데 땀 흘려 헌신했던

⁷⁷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60.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대화할 수 있다면, 성경통독의 가장 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조병호, 2016:61)⁷⁸

복음 확장과 신앙 계승

만약 성경을 전체로 읽지 않는다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자손에 대한 언약과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은 별개의 사건이 되고 만다. 땅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독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며 신앙이 계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5절에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약 500년이 지난 후에 온전히 성취되었음(출 1:7)을 확인할 수 있다. 땅에 대한 약속도 여호수아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족보와 혈통을 따라 기계적으로 계승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교육하였으며, 그의 후손이 붙잡고 살아야 할 유언을 남겼다. 아브라함이 유언을 남겼고 야곱과 요셉이 유언을 남겼으며, 다윗은 솔로몬에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바울도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겼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의 바른 신앙 계승이라는 통로가 있었다.

⁷⁸ Ibid., 61.

신앙은 교육을 통해 계승되었고, 그 계승된 신앙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조병호, 2016:62).⁷⁹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 실천

십계명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계명과 이웃의 기쁨을 위한 계명,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또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해 주셨다(마 22:37-40).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싶으셨던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헌신하며 동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큰 기쁨이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분이셨으며,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의 위로와 온 인류의 기쁨이셨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기쁨의 균형적인 실천을 꿈꾸어야 한다(조병호, 2016:62).⁸⁰

성경의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역의 중심에는 십자가 사건이 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그 모든 죄가 씻음 받는 구원의 상징이다. 또한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실천이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 이후 영광의 면류관을 위한 과정임을 알고 있었다(롬 8:18).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딤후 1:8).” 라고 자신 있게 당부할 수

⁷⁹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62.

⁸⁰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62.

있었다. 바울에게 복음은 기쁨의 실천이었다(조병호, 2016:63).⁸¹

5박 6일 성경통독 특성

66권 신구약 전체를 원스토리로

인류는 4000년 역사 속에서 패러다임이 몇 번 바뀌었다. 아브라함 때와 지금의 패러다임이 똑같은 건 아니다. 많이 바뀌었다. 성경 2000년 역사 속에도 패러다임은 모세, 다윗, 예레미야 예수님, 바울 이렇게 다섯 번 정도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보통은 작은 것을 실감 나게 말하는 것이 개인을 설득하는데 효과적이다. 개인을 놓고 그 개인이 체득해서 경험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꼬집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설득된다. 왜냐하면 부분의 합은 전체의 합보다 크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패러다임 이야기가 더욱 중요하다. 오늘날은 너무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를 붙들고 파고들어 가서 사람을 그 자리에서 확 꺾어놓는 그런 이론, 그런 테크닉은 월등한데 거시적으로 큰 패러다임을 보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오래고 긴 싸움에서는 크게는 지고 작게 이기는 것이 현실이다. 기독교 내에서도 미시적인 것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펼쳐나가곤 한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미시적인 기법이나 방법론을 탐구하여 현장에 적용하면 바로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시를 보는 안목과 틀 잡는 훈련이 된다면 크게 지고 작게 이기는 싸움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⁸².

⁸¹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63.

⁸² 게슈탈트이론은 부분의 합이 전체의 합보다 크게 인식된다는 인간의 인식의 비합리성을 꼬집은 이론이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코끼리를 알기 위해 코끼리의 뇌와 팔 다리, 그리고 몸통을 따로 연구한 결과를 서술하면 실제 코끼리보다 거대해 보인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패러다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인류가 산업혁명을 겪으며 과학 기술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여 오늘날 일반 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다.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기술적이라는 평가가 칭찬이 되고 업적이 되는 풍토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는 신약시대부터 르네상스시대까지는 발전과 풍요라는 목표를 가지고 삶을 영위했다.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그리고 3차 산업으로 발전하여 인류의 삶의 질이 매우 높아졌으며, 의학과 기술의 발달로 생명이 연장되었다. 그리고 4차 혁명에서 정보의 혁명이 일어나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춘 국가가 선진국이 되고 풍요로운 나라로 인식되게 되었다⁸³.

애플 창업자 스티브잡스는 펩시콜라 사장을 찾아가서 “당신 평생 설탕물 팔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나와 같이 창조적인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했다고 한다. 이 질문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펩시 사장이 하는 일은 설탕물을 파는 것이고, 스티브잡스가 하는 일은 창조적인 일이라 것이다.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보다는 과학기술에 관한 일을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일로 단정짓고 있는 것이다. 빌게이츠가 컴퓨터를 패밀리화하여 각 가정으로 끌어들이었다면 스티브잡스는 프라이버시에 주목하여 컴퓨터를 개인적인 장비가 되도록 했다. 처음에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땐 미국 국방부와 같은 큰 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빌게이츠로 인해 발전되면서 학교 단위, 가정에서 구비하는 장비가 되었다. 그런데 이걸 스티브잡스가 좀 더 발전시켜서 개인적인 장비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이다.

⁸³ 조병호, 렉처러코스 강의 중.

전환을 현대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며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일로 본 것이다⁸⁴.

그러나 과연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과학 기술의 혁명을 통한 정보 시대가 최고의 시대인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인류를 전망해 보면 과학과 기술, 합리성과 이성이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재해와 질병이다.

성경에서도 유대인의 역사에 많은 풍요와 발전 그리고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반복되는 구속사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세속사 역시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통해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룬 인류는 페스트라는 전염병을 만나 유럽 인구의 60%가 사망하고, 교권과 왕권이 약화되는 시대를 겪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 대해 인간의 발달된 기술과 학문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 했지만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극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갈지 또 다른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찾아올지 알 수 없다.

다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 더 나아가 인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과학과 기술을 지나치게 신봉한 인류가 봉착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움에 대한 해법 역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제 세속사의 용어로,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기가 다시 온 것이다. 과학 기술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물질적인 발전을 이룩한 인류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성경의

⁸⁴ Ibid.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가능한 것이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지고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천지창조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전체를 조망하고 부분을 파악하면 쉽지만 부분을 파악하면서 전체를 조망하기는 어렵다⁸⁵.

성경 안의 수많은 사건과 인물의 관계를 다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지난 수 세기 동안의 패러다임이었다면 21세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성경을 원스토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에덴동산을 떠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자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는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역사순 성경 읽기와 강의를 통으로

조병호는 5박 6일 성경통독을 진행하면서, 성경 전체를 한 권으로,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역사순으로 재배열하여 통독한다. 동시에, 성경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석자가 역사순으로 재배열된 성경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조병호는 역사순 강의를 위해서 성경 전체를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7개의 트랙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7개의 트랙은 또다시 52개의 구체적인 스토리로

⁸⁵ 조병호, “성경 통으로 보기 성경과 통(通) 패러다임 - 성경통독과 통신학,” *월간목회* 4월호 (2012).

구성했다. 조병호가 구분한 7개의 트랙은 다음과 같다.

통트랙1: 모세5경(제사장 중심으로 세워진 제사장 나라)

‘모세5경’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모세 시대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 셋업’ 분위기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들을 흉년에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였고, 그곳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이라 부를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 19:5-6)

하나님은 ‘민족’은 있으나 ‘나라’를 갖지 못한 히브리인들에게 제국주의를 꿈꾸던 애굽의 오만과 억압을 민족적으로 체험하게 하였고, 그들에게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훈련시키셨다.⁸⁶

통트랙2: 왕정 500년(선지자와 왕의 대립과 협력 속에 경영된 제사장 나라)

‘왕정 500년’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들이 대립하고 협력하는’ 분위기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에 의한 통치가 아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살다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의 왕정 요구로 시작된 ‘왕정 500년’은

⁸⁶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통독원, 30, 2020

모세5경과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뀌게 된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삼상 8:6-7)

하나님은 왕정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렇게 왕정 500년이 시작된다. 왕정 500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이후 계속해서 왕과 선지자들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대립과 협력의 500년 시기를 보냈다.⁸⁷

통트랙3: 페르시아 7권(제국을 도구로 사용하며 경영된 제사장 나라)

‘페르시아 7권(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은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 가는 분위기이다. 페르시아 7권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의 처참한 형편과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속에서 쓰인 내용이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불에 타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성은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약탈 당했다. 그 광경을 보고 예레미야가 간이 땅에 쏟아지는 고통을 느끼며 밤새 울고 또 울었다. 그런데 새벽에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⁸⁷ Ibid., 163,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은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애 3:19-23)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므로 그들을 통해 다시 제사장 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의 이 꿈은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 때 에스라, 느헤미야 등을 통해서 현실이 된다.⁸⁸

통트랙4: 중간사 400년(유대인에 의해 형식화된 제사장 나라)

‘중간사 400년’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구약성경의 세계화와 유대 분파가 형성’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중간사의 기간은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400여 년이다. ‘중간사 400년’ 기간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이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헬라 제국 시대에 셀루커스 왕조의 유대 핍박으로 인해 유대에 여러 분파(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등)가 생겨났다. 하나님은 이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사용하셨다.⁸⁹

통트랙5: 4복음서(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4복음서’는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셋업’ 분위기이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등장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⁸⁸ Ibid., 308.

⁸⁹ Ibid., 386.

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천과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막 1:14-15)

예수님은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어부에게는 그물 비유로, 주부에게는 누룩 비유로,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주 비유를 들어 누구나 쉽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셨다. 마침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수렴된다. 모든 제국은 하나같이 ‘제국이여 영원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모든 제국은 결국 다 망했으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⁹⁰

통트랙6: 사도행전 30년(복음 1세대가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 전한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30년’은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이다. 신약시대, 로마 제국의 속국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세력 곧 산헤드린 공회 세력은 로마 황제나 로마 총독, 심지어 분봉왕 헤롯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런 그들이 앞장서서 로마를 이용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⁹⁰ Ibid., 425.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행 4:6-10)

이렇게 사도행전 4장을 기점으로 사도들이 대제사장 세력들과 각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 4복음서의 분위기와는 다른 역동적인 공기가 생성된다.⁹¹

통트랙7: 공동서신 9권(복음 2세대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전파한 하나님 나라)

‘공동서신 9권(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요한일·이·삼서,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분위기이다. ‘사도행전 30년’ 기간에 기독교는 주로 유대교에 의한 기독교 전도 방해, 즉 유대교와 기독교의 대립이 주된 어려움이였다. 그러나 A.D.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는 유대교를 넘어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한다. 로마가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시점부터 또 다른 분위기가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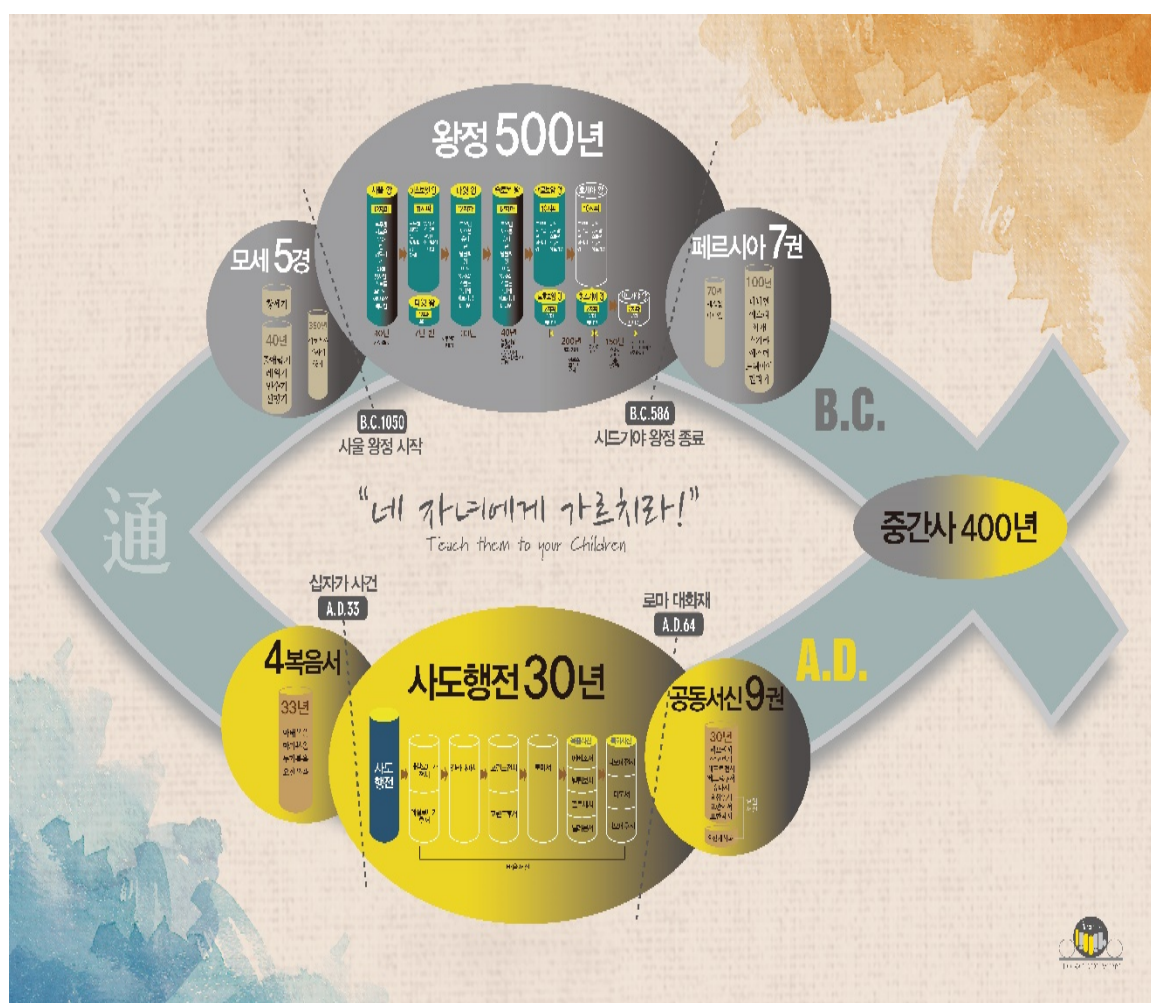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⁹¹ Ibid., 491.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딤후 4:6-8)

바울을 비롯해 복음 1세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욱 힘내서 로마 제국의 박해와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 사상과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을 만든다. 결국 A.D.313년, 기독교는 250여 년간의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⁹² 통성경 7트랙을 하나의 이미지로 구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통성경 7트랙⁹³



⁹² Ibid., 581.

⁹³ 성경통독원 제공.

역사서와 예언서를 통으로

현재 성경의 편집 순서대로 보면, 창세기부터 이어져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읽고,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터를 읽게 된다. 에스더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등장한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느헤미야를 알았는가? 몰랐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느헤미야보다 먼저 살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예레미야보다 훨씬 후대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예레미야의 사역과 그가 선포한 메시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지식에 기반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 그렇다면 현재 편제대로 성경을 읽어가는 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성경의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문학작품은 문학작품대로,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모아놓은 형태로 편집이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구약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알 수 없다.

예레미야 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성이 무너졌다.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재건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이다. 예루살렘성의 파괴와 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예레미야를 읽고 그 후에 느헤미야를 읽는 것이 옳다. 그런데 현재의 성경 편제를 따라 성경을 읽으면 느헤미야를 먼저 읽고, 시가서를 읽고, 한참 후에야 예레미야를 읽게 된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먼저 읽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에 앞선 사건인 성벽 파괴 사건을 읽으니 헷갈리는 것이다. 시대 순서대로 재배열하여 읽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노력해도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성경을 몇 년에 걸쳐 한 번씩 지금의 편집대로 읽으면, 열왕기하 25장의 내용과 예레미야 39장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끝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 시대의 공시성을 소홀히 여기고 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대 배경이 같은

기록끼리는 공시적으로 묶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경에 대한 열심으로 몇 번 읽었다는 그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방법론이 매우 중요하다. 똑같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때로는 상호 보완적이기 위해서, 혹은 큰 틀에서 통(通)으로 가기 위해서 공시적인 배경을 가진 내용이 같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책의 제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끝내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간다면 너무나 아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다음 다니엘과 에스겔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바벨론의 왕궁에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 교육을 받고 있던 다니엘은 자기의 민족이 2차 포로로 대거 끌려왔다는 소식을 접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차로 끌려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는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의 소식도 전해 들었을 것이다.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들은 서로 공시대적 아픔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다니엘과 에스겔을 봐야 한다. 다니엘은 또한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잘 알았을 것이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은 적이 있다고 스스로 적고 있다. 이렇게 공시적으로 그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의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야 ‘통(通)’이 나온다.

그다음 에스라 1-4장, 학개와 스가랴를 읽고, 에스라 5-6장, 에스더서를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난 후에 에스라 7-10장, 시편 119편을 함께 묶어보면 좋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와 말라기를 차례로 읽으면 된다. 느헤미야는 현재의 편제상 역사서 뒤에 있기 때문에 말라기에 비해 한참 앞쪽에 있다. 반면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끝에 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가진 이 편제대로만 읽다 보면 느헤미야를 1년 전에 읽고 1년 후에 말라기를 읽을 수 있다. 그러니 느헤미야와

말라기가 비슷한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몸부림쳤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이상으로 구약 전체를 시대순으로 살펴보았다. 사실, 시대 순서대로 읽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하고 단순한 방법이다. 성경을 통(通)으로 보면 때때로 괴로움과 슬픔, 아픔 등 가까이 하지 않고 싶은 고통스러운 요소에 붙들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에 대한 지식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무너지지 않고 힘 있게 서서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주기도 한다(조병호, 2016:103-105)⁹⁴. 구약의 율법서와 역사서를 통시적으로 나열해 보면 다음 <표9>과 같다.

<표9> 율법서와 역사서의 통시적 정리⁹⁵

1) 원역사, 족장 시대, 모세와 출애굽 시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5권)
2) 가나안 정복과 사사 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3권)
3) 왕정 시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6권) (사무엘상은 마지막 사사로 활동했던 사무엘의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으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둘 다 포함하고 있는 책이다. 역대상의 대부분 내용은 사무엘서와 겹치고, 역대하는 열왕기서와 겹친다.)
4)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3권)

<표10> 예언서의 통시적 배열⁹⁶

시대구분	예언서	예언자 주요 활동시기
왕정 시대 예언서	아모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⁹⁴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통독원, 103-105, 2016.

⁹⁵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6.

⁹⁶ Ibid., 24.

	요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앗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활동)
	이사야	남유다 웃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미가	남유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스바냐	남유다 요시아 왕 시기로 추정
	하박국	남유다 여호야김 왕 시기로 추정
	나훔	남유다 요시아 왕 때(니느웨를 대상으로 선포)
	요엘	황동 시기 불명확하나 예루살렘 멸망 전으로 봄
	예레미야	남유다 요시아,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애가	예루살렘 멸망 후 예레미야 지음
	오바다	활동 시기 불명확하나 예루살렘 멸망 어간으로 봄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 예언서	다니엘	남유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에스겔	남유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학개	페르시아 고레스 이후 다리오 1세 때
	스가라	페르시아 고레스 이후 다리오 1세 때
	말라기	페르시아 다리오 2세 때(느헤미야와 함께 사역)

구약에 나타난 예언서들을 통시적으로 표현하면 위 표와 같다. 왕정 시대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의 예언서들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구약의 예언서들을 역사 순서대로, 즉 역사를 기술한 열왕기상하서와 역대기상하서를 중심으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사역이 담긴 예언서를 살펴야 성경을 더욱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성경의 역사는 모두 인간의 역사와 통시적으로도 일치한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통시와 각 시대가 함께 펼쳐지는 공시를 모두 살펴야 함으로 역사서와 예언서를 통으로 보아야 한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으로

신약성경에서 통시와 공시적인 관점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과의 관계이다. 먼저 사도행전 1-12장에는 예수님의 승천 후 남겨진 열두 제자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18장 22절까지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기록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당시에 기록한 바울 서신 곧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는 이때 함께 살핀다. 바울이 초기에 쓴 갈라디아서도 이때 함께 읽는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기록인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19장까지를 읽은 후에는 이때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읽는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20장 1-6절과는 로마서를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이어서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28장까지를 읽는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랴로 간 이야기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로마 감옥에서 연금 상태로 지내게 된 바울은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다. 그리고 2년 만에 잠시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이 또다시 전도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면서 기록한 편지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이다. 하지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 죄수들을 다시 소환하자, 이때 생의 마지막을 예감한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쓴다.⁹⁷

이상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행적과 연관하여 살필 수 있는 바울 서신들의 흐름이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보고, 그 역사 흐름 속에서 서신서들의 탄생 배경을 염두에 두고 공시적으로 묶어보아야 한다.

⁹⁷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221-222.

<표11> 사도 바울의 사역을 시간순으로 배열⁹⁸

사도 바울의 사역과 바울서신(사도행전 下와 13권)	
1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3장~15:35
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5:36~18:22,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갈라디아서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8:23~19장,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사도행전 20~26장, 로마서
로마에서의 바울	사도행전 27~28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성경으로 시작하고 성경으로 끝남

인간이 하나님보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합리성과 이성을 바탕으로 이룩한 시스템을 지나치게 믿게 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강력해진 바이러스와 환경의 파괴이다. 어지간한 항생제나 약으로 죽지 않는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병화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는 세속사의 사건들을 성경 속에서 유대인이 겪은 구속사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모두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과학과 기술로 무장한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 무장한 신학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 요즘 용어로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이다.

아프리카 나이로비에서 기도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 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이적이 일어나는데 왜 핀란드 헬싱키에서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 어느 목회자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시스템을 지나치게 믿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나님은 의학, 과학, 기술로 무장한 시스템을

⁹⁸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23.

인류에게 허락하신 전지전능하신 유일신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시스템이나 이론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은 성경에 기술이 되어 있다. 더하지도 감하지도 않은 성경 66권에 모두 담겨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이성과 합리성이 마주한 한계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성경에 기술된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성경 한 권 가지고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제 V 장

성경통독과 신앙 성장의 사례들

인터뷰 개요

인터뷰는 성경통독 프로그램 참여자 중 목회자의 응답만을 선별하였다. 질문은 성경통독에 참여한 소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자유롭게 서술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응답자의 성명과 소속은 모두 무기명 처리하였다.

인터뷰 내용

성경통독 프로그램에 했던 목회자의 소감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 1: 조병호 박사님의 열정에 감동하여 남은 생애를 통독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참여자 2: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시대의 유행의 병합하지 않는 순수한 사역을 지향하는 통독원 사역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참여자 3: 조병호 박사님의 강의, 말씀을 통해 많이 공감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심을 깨닫고 동역자 의식을 갖습니다. 앞으로 하나된 민족과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통독원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여자 4: 성경통독을 통해 성도들과 누릴 은혜와 기쁨을 먼저 맛보았습니다.

참여자 5: 목회자로서의 통전적 성경 이해가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나 자신부터 성경통독을 통해 말씀 전체 속에서의 본문 이해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6: 성경에 대한 편협성을 깨닫게 되었고 통전적 성경 연구와 이해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7: 통설교의 깊이와 내용을 새롭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8: 통설교와 성경통독에 대한 발전적 아이디어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바다에 빠져야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참여자 9: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참여자 10: 설교를 하면서도 목말랐던 부분들을 시원하게 해결받고 갑니다.

참여자 11: 성경통독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통설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어 목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여자 12: 통독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을 쉽게 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성경통독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룬다면 무진장 성경을 쉽게 전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참여자 13: 성경통독의 중요성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꼭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여자 14: 성경통독에 대하여 실천할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참여자 15: 성경통독은 나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제시하게끔 해주었고, 또 나로 하여금 많은 도전을 받게 해준 수련회였습니다.

참여자 16: 지금도 가슴속에 남아 있는 한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노아가 한 일은 방주를 짓는 일이었다. 은혜 받은 자는 헌신하는 것이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만은 안은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으로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진지하게 만나는 귀한 체험을 했습니다.

참여자 17: 프로그램이나 주최측이 누구인지도 중요하겠지만 말씀 위주로의

시간들이 매우 눈에 띄었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에 학생들을 데리고 기대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평상시 이러한 습관에 전혀 익숙지 않은 상태여서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씀 속에 빠져들어 가는 것을 보고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고 교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련회가 너무 짧았다. 조금만 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며 교회로 향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과 함께 해 왔다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여자 18: 공부를 위한 것이라면 돈이 많이 든다 해도 기를 쓰면서 가르치는 것이 요즘 교육의 현실인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시는 부모님은 거의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주면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데 지금까지 우리 부모와 교회에서 너 소홀했던 것을 반성해 봅니다.

결과 분석

본 인터뷰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로서 교육, 치료 그리고 전도라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하는 살아 있는 제자들이며 복음의 증인들이다.

이분들의 소감을 정리해 보면 성경통독은 갈급한 영혼에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지도자가 먼저 일어나 말씀에 집중하면 그들을 따르는 성도 역시 변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120년이 증명해 주고 있다. 교회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 말씀에 집중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큰 열매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나름대로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해 왔다.

그래서 한국은 발전했고, 정치적, 경제적 선진화를 이룩한 것이다. 복음이 없던 시절의 한국과 복음이 있는 한국을 비교해 보면 객관적, 수량적으로도 차이가 분명하다. 그러나 보다 깊이 있는 질적인 분석도 필요한데 이는 과학이나 합리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개인적인 체험이다. 따라서 인터뷰를 통해 정리하고 문서화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은 부수적인 것이며, 먼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개인적인 발전과 성장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통신학에 따라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며 성경통독을 통해 말씀으로 복음화를 이끌고 있는 조병호의 5박 6일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고찰해 보고 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제 VI 장

결론

요약과 평가

본 연구는 초막절과 성경통독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구약과 신약을 근거로 초막절 의례에 담긴 성경 낭독의 의미와 성경통독을 통한 신앙 성장의 역할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제1장에서는 먼저 구약과 신약에 기록으로 남은 초막절 의례와 율법 낭독의 의미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초막절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유대인의 절기를 연구한 연구 중에서 일부분으로 초막절을 탐구한 연구와 초막절만을 탐구한 연구가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초막절의 의의와 의례에서 나타난 상징성에 관한 연구였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과정으로 이어지는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연구이다.

제2장에서는 초막절의 의미를 구약과 신약의 기록으로 고찰하고, 특히 초막절에 행해진 율법 낭독과 그 의미를 담아 교회가 발전시키실 프로그램인 성경통독과의 연결점을 연구하였다.

먼저 구약에서 살펴보면, 인간의 시간으로 약 6000년의 역사를 가진 유대인의 절기는 모두 모세오경에 근거한다. 유대 민족의 절기는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때부터 시작되었고 성경을 근거로 행해지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다.

각 절기를 통사적으로 고찰해 보기 위해 성경 및 기타 역사적인 문헌을 정리해 보면 그 이름과 시행 시기와 방법이 조금씩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경에 나타난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반복을 통한 사회화와 문화 형성 그리고 교육의 과정이다.

구약 시대의 가르침은 예배, 생활, 문화, 습관 그리고 이를 전승하는 방법까지 이른다. 아담과 하와가 자손을 이루고, 노아 시대를 거쳐,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문명은 있었으나 문화는 없었다. 문명과 문화는 분리해서 고찰해야 한다. 문명은 생존을 위한 인간사회의 농경 기술과 건축 그리고 이를 위한 학문 및 예술을 통칭한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것이다. 그러나 문화는 정신과 물질적인 것을 모두 아우른다. 문화가 없던 시절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시거나 선지자들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 즉, 애굽이나 바벨론에는 문명은 있었으나 문화는 부족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문명보다 문화, 즉 정신적인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 광야 생활에서는 광야에서 생존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인간 사회에 필요한 법을 돌판에 새겨주셨다. 또한 생존에 필요한 음식 분별과 의복 그리고 주거와 성전의 건축까지 가르쳐 주셨으며, 이때 정확한 도량과 측정 방법도 지정해 주셨다.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절기는 인간사회에 필요한 문명과 문화를 학습하고 후대로 전승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신약에 나타난 초막절에 베푸신 예수님의 설교는 초막절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한다. 특히 예수님이 초막절 기간에 성전에 오르셔서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시고 봉독하시며 가르치신 것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나’는 선언을 통해 초막절 명절의 주인이 되신 것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또한,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전승하기 위해 초막절에 행해진 율법 낭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성경통독의 역사와 실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 교회에서 진행되어 왔던 성경통독의 역사를 개인적, 교회적으로 살펴보고, 출판을 통한 성경통독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1989년부터 성경통독을 대중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는 성경통독원 원장인 조병호가 말하는 성경통독의 개념과 의미를 소개하였고, 성경통독의 ‘대중화, 학문화, 세계화’를 위한 노력에 살펴보았다. 그리고 성경통독원의 5박 6일 성경통독의 역사와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조병호는 2007년부터 통(通) 방법론을 주장해 왔는데, ‘강해와 통독’의 만남은 한국의 문화사적 공간이 빚어낸 결과라고 했다. 이를 잘 활용하며 상호 침투시켜 ‘통(通)의 방법화’로 성경을 읽으므로, 결국 ‘성경의 풍요’를 세계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한국 기독교의 성경통독은 서양 신학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5박 6일 성경통독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먼저 ‘통성경’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통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통으로, 민족과 국가를 통으로, 제국과 제사장 나라를 통으로, 제국의 정책과 하나님의 세계경영을 통으로 보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경을 읽을 때 가급적이면 시간과 공간, 역사와 지리, 민족과 국가, 제국과 제사장 나라, 제국의 정책과 하나님의 세계경영 등 이런 통의 키 콘셉트를 잘 살펴 가면서 읽어야 하고, 이렇게 읽어야 하나님이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 계시해 주시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성경을 기반한 성경통독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 알기 위해, 복음 확장과 신앙 계승을

위해,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의 실천을 위함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5박 6일 성경통독의 특징 다섯 가지를 소개하였다. 첫째는 66권 신구약 전체를 통으로 본다는 점이다. 즉, 성경 전체를 원스토리로 본다.

둘째, 역사순 성경 읽기와 강의를 통으로 본다는 점이다. 조병호는 5박 6일 성경통독을 진행하면서, 성경 전체를 역사순으로 재배열하여 통독한다. 동시에, 성경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석자가 역사순으로 재배열된 성경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강의를 병행한다. 조병호는 역사순 강의를 위해서 성경 전체를 7개의 트랙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7개의 트랙은 또다시 52개의 구체적인 스토리로 구성한다. 셋째로 역사서와 예언서를 통으로 보고, 넷째로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으로 보며, 마지막으로 성경으로 시작하고 성경으로 끝난다는 특성이 있다.

제5장에서는 성경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한 목회자들의 인터뷰를 질적분석하였다. 인터뷰는 성경통독에 참여한 소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자유롭게 서술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응답자의 성명과 소속은 모두 무기명 처리하였다. 성경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목회자들의 소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병호 박사의 통성경 신학에 대한 열정에 감동하여 남은 생애를 통독 사역에 헌신하겠다는 결심과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시대의 유행의 병합하지 않는 순수한 사역을 격려한다는 소감이 있었다. 조병호 박사의 강의를 통해 많은 공감을 얻었고, 앞으로 하나된 민족과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바라며 5박 6일 성경통독 프로그램이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소감도 있었다. 그 외 성경통독을 통해 성도들과 누릴 은혜와 기쁨을 맛봤다는 소감, 목회자로서의

통전적 성경 이해가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부터 성경통독을 통해 말씀 전체 속에서 본문의 이해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다는 소감 외에도 많은 분의 소감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앞으로 목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정리하면 성경을 원스토리로 이해하며 통시와 공시를 함께 역사적인 흐름으로 살피면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이는 성경통독원 5박 6일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고찰해 보고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근거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과 제언

2020년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많은 것이 변했다. 대중적인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직장은 재택근무로,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변화하였다. 교육과 업무 그리고 회의가 비대면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모임을 중요시하는 한국 교회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모임을 삼가고 온라인 예배나 소모임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 교회를 다시 살려내고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안이 절실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1년을 넘기고 언제 진정될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삼가고 인류가 보다 건강한 공동체로 변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성장이 멈추고 침체된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부흥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해 본다.

매 7년 면제년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회복을 위해 시행된 율법

낭독과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후에 포로 귀환자의 영적 성장을 위해 진행한 율법 낭독 신앙 사경회를 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다.

초막절에 진행된 율법 낭독 신앙 사경회의 내용을 실제 한국 교회의 목회현장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대안으로 ‘5박 6일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해 초막절을 지키며 노예 민족에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후손들에게 이를 계승했다. 이를 위해 초막절에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끊임없이 행했던 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5박 6일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살펴본 것이다.

‘5박 6일 성경통독’ 프로그램은 성경통독원 원장인 조병호가 지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5박 6일 동안 함께 모여 성경 66권 전체를 통독하고, 인도자를 통해 성경 해석을 듣고 배우는 과정이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한국 교회의 목회자는 물론이요, 평신도들이 신앙 성장과 영적 성숙을 이루는 데 소중한 도움을 받았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갑자기 많아진 개인 시간을 주체할 수 없는 이들이 넷플릭스나 소셜네트워크와 같은 언택트 매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그 시선을 교회 안으로, 신앙 안으로, 성경 안으로 돌려야 한다. 늘어난 개인적인 시간을 세상 속에 빼앗기지 않고 신앙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자산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성경 읽을 시간과 기회로 삼아,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개인의 신앙 성장은 물론이요, 침체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부흥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한국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에 의미 있는 작업이 되리라 생각한다.

참고 문헌

외국어 서적

A. P. Bloch. *The Bibl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Jewish Customs and Ceremonies*. New York: Ktav, 1980.

번역서적

C. F. Keil and F. Delitzsch, Ezekiel, *에스겔/카일, 델리취 구약주석*. 송종섭 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4.

Joseph Blenkinsopp, *에스겔/현대성서주석*. 박문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디트리히 본회퍼,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한국어 서적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기독교백과사전 제14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4.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5.

조병호. *성경통독 이렇게 하라*. 서울: 땅에 쓰신 글씨, 2004.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9.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개정판*. 서울: 통독원, 2016.

조병호. *성경, 통으로 숲 이야기9*. 서울: 통독원, 2020.

조병호. *통이다 랫즈통*. 서울: 통독원, 2007.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5.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개정증보판*. 서울: 통독원, 2020.

조병호. *성경과 5대 제국*. 서울: 통독원, 2011.

조병호. *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 가이드북*. 서울: 통독원, 2014.

논문, 잡지, 기타 간행물

강사문, “고대 이스라엘의 삼대 명절과 기독교 축제.” 장신논단 제1집(1985), 183-210.

강성열, “진리를 아는 기쁨.” 설교자를 위한 성경연구 제7권 74호(2001), 32-34.

권혁승, “이스라엘의 신앙과 신학의 관점에서 본 초막절.” 성경과 신학 제24권(1998), 29-54.

경향신문. 1974.09.24

경향신문. 1974.10.14

권혁승. “말씀과 신학 삶으로 읽는 구약성서: 초막절과 추수감사절-레23: 39-43.”
활천11호(1997).

김선종. “면제년의 땅(신 15:1-11).” 장신논단 제44집(2012), 14-26.

노희경 “기독교인 43% “성경 통독 경험 없다.” 국민일보. 2008.02.13.

동아일보. 1976.01.01

매일경제. 1969.04.16

박구용. “구약-신약-성약시대 명절의 축제문화 연구.” 신학박사 학위논문,
선문대학교 신학대학원, 2017.

박상수. “구약성서의 수장절 초막절 규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감리신학대학교, 2004.

방석종. “야웨 초막절 축제 설교자들.” 신학과 세계52권(2005), 5-40.

성경통독원 자료.

오세진. “초막절의 현대적 의의와 적용: 느헤미야 8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총신 대학교, 2008.

이강근. “이스라엘의 초막절 버들가지 들고 기도.” 교회와 신앙. 2010.09.10

이훈하. “느헤미야 8-10장의 율법낭독 연구.”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8.

이해영. “요한복음 4:14; 요한복음에 나타난 절기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4.

장화선. “구약의 3대 절기와 신앙 교육에 대한 연구.” *신학지평*(2006), 19.

조병호. “성경 통으로 보기 한국교회와 성경통독의 역사.” *월간목회*3월호(2012).

조병호. “성경 통으로 보기 성경과 통패러다임1 성경통독과 통신학.” *월간목회*4월호(2012).

조병호. “성경 통으로 보기 통으로: 전체로, 역사 순으로, 하나님 마음까지.” *월간목회*6월호(2012).

조병호. 성경통독원 성경통독 프로그램 강의 중.

조병호. 렉처리코스 강의 중.

조선일보. 2008.06.05.

조재선. “요한복음에 나타난 초막절의 신학적 모티프 - ‘말씀’ 과 ‘성령’ 으로써의 ‘물’ 모티프.” 석사학위 논문, 안양대학교, 2006, 10-13.

웹사이트

<https://hanja.dict.naver.com/hanja?q=%E9%80%9A>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jyoun24&logNo=220699802748&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https://tongdokwon.tistory.com/134>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Sungbong, Jin

Place and Date of Birth: Suncheon, South Korea. October 5, 1983

Parent's Names: Oemun, Jin and Hyunsuk, Cho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Yedang High School 155-12, Yedang-gil, Boseong-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8, 2002
Collegiate: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77 Jejung-ro, Nam-gu, Gwangju, Republic of Korea	B.A	Feb 14, 2014
Graduate: Honam Theological Seminary 77 Jejung-ro, Nam-gu, Gwangju, Republic of Korea	M.div	Feb 12, 2017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ungbong~~

Signature

Sungbong Jin

Name typed

March 12, 2021

date